

vol.  
027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 KOSCA LETTER

부산의 미래 발전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 辛丑年

신축년(辛丑年)에는  
우직하고 강인한 소처럼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전문건설업의 무궁한 발전과  
건설사업자의 희망찬 앞날을 위해  
늘 힘쓰겠습니다.



## 2021년 Vol. 27

- 표지이야기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 발행인 회장 김세원
-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 사진제공 부산광역시

## PART 1

### 04 신년사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종경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 PART 2

### 09 협회 소식

### 17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0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20년 4/4분기 신기술 현황

## PART 3

### 22 전문건설인의 삶 **건강인 제51호** - (주)삼신퍼스틸 대표이사 임호성 **건강인 제52호** - (주)동영산업건설 대표이사 강재준

### 26 건설산업정보 - Section 01

### 38 건설산업정보 - Section 02

### 48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51 그것이 알고싶다 하도급 분쟁 해법

### 52 특별기고 동남권원자력연구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 자신의 몸상태를 미리 알고 운동해야 합니다.



## PART 4

### 54 회원사 현황

### 56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질식사고 예방

## SPECIAL

### 58 SPECIAL 01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60 SPECIAL 02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62 SPECIAL 03 생활 속 유용한 꿀팁

### 63 SPECIAL 04 건강지킴이

### 64 SPECIAL 05 부산의 명소 - 동백섬

### 66 SPECIAL 06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베르사유 궁전

### 68 SPECIAL 07 취미의 발견

### 69 SPECIAL 08 틈새 회화

### 70 SPECIAL 09 쉬어가는 유머

### 71 SPECIAL 10 틈새 스트레칭

### 72 SPECIAL 11 KOSCA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2021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 73 SPECIAL 12 2021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 74 SPECIAL 13 독자와 함께 - 독자의견 및 퀴즈

## 짙은 적막을 깨우고 희망의 새날을 여는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 세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먼저, 지난 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한 해는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날만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해였습니다. 전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마스크’라는 울타리에 갇히며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반가운 이와의 만남이 거부감으로 다가왔으며, 친근감의 표현이던 악수도 결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남이 끊어지자 경제도 멈추어 섰습니다. 팬데믹의 공포 속에 전세계의 경제지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우리나라 경제도 수출길이 막히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경제가 무너지며, 민간소비는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의 희생 속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체계적인 진단검사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위기대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수출경제도 조금씩 살아나며 작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초토의 시’로 유명한 시인 ‘구상’은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우리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제시하며, 새로운 인식전환과 도전정신,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변할 것입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의 합리적인 발주가이드라인 마련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및 생활형 SOC사업의 투자 확대에서의 참여방안 마련 등으로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2021년은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축년의 붉은 해를 바라보며, 올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1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올해는 인내와 우직함을 상징하는 소의 해입니다. 전문건설인 모두가 인내심과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반환점을 만들어 내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협회는 뜻심과 쉬지 않는 열정으로 전문건설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업계는 물론 나라 전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유례가 없는 혼란과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내수경기의 하락을 막아내는 첨병의 역할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위기에 강한 우리의 역량을 과시하였습니다.

연중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전문건설인들의 뜨거운 성원과 변하지 않는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운 중에도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사적인 경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은 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의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줄기 희망도 보입니다. 올해는 27조 규모의 역대 최대 SOC예산 편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내수경기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금년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헤쳐 나가는 것은 전문건설인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호혜적인 주변의 여건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위기와 불리한 사업여건에서도 화합과 단결, 남다른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저력을 발휘해 왔으며, 전문건설의 역사는 곧 역경을 극복해온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문건설의 생존과 미래는 우리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며,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바다에 비바람이 치고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등대는 그 갈 길을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됩니다. 중앙회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위기극복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업계가 갈 길을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1년 새해 우리가 소와 같은 우직함과 쉬지 않는 열정을 발휘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이 위기라는 큰 파도를 넘어 진정한 국가기간산업으로 재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하시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성취되고 늘 건강과 웃음이 활짝 피는 날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영 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 함께 손잡고 부산 대도약의 해를 만들어갑시다!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辛丑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희망으로 빛나고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재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염병 위기를 잘 관리했고 이겨낼 수 있다는 단단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똘똘 뭉친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전 지구적 재난으로 우리 경제는 그 어려웠던 IMF 외환위기보다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지역 건설업 역시 가장 최전선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신 김세원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함께 연대하며 인내해 주신 모든 회원사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난 한 해 우리 부산은 시민의 화합과 단결로 미래를 향한  
큰 도약대를 마련했습니다. 무려 17년을 염원해온 시민의 꿈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드디어 본궤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역경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더 단단히 결속하는  
부산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2021년 부산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어렵사리 마련한 대도약의 전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력을 다해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에 매진할 것이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 등 부산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전력 질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원대한 포부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부산시의회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辛丑年)의 힘찬 기운과 더불어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번창과 모든  
회원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庚子年)을 보내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코스카레터' 제27호가 발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와  
주 52시간 근로제의 확대 적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의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전문건설업 건설경기 실사 지수의 하락과 수도권보다  
지방의 위축세가 심화하고 있어 2000여 회원사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축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부의 SOC 예산이 증가했고,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정부의 핵심 건설사업의 지속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투자 증가와 민간투자 회복의 신호도 보이고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침체한 지역 경기의 위기 속에서도  
협회는 건설업 관련 법령이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건설업 공정 거래  
제도의 확립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협회의 부산 회원사를  
위한 헌신은 부산 건설산업의 앞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생태·해양 교육을 강화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중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매년 지원해주시는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 기부는 우리 교육청의 미래 교육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협회의 따뜻한 나눔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辛丑年)의 시작이 쉽지 않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오듯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꼼꼼히 살피며 함께 뛰겠습니다.



**김종경**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도무지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기세로 모두가 암울하고 힘든 1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인 여러분의 고충은 더 컸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깊은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시는 여러분의 그러한 노고를 결코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는 기본을 잊지 않고 함께 뛰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도 변함없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7조 7천여 억 원)를 또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등으로 국가 전체 투자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는 3년 연속 사상 최대규모 액의 기록을 경신하며 국비를 확보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는 주요 역점사업들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동남권 관문공항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등 가덕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무려 61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모든 동력을 총동원하여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절된 도심 연결을 위한 경부선 직선화 등 철도시설 효율화, 원도심 재생사업(~2023년), 에코델타시티 조성(~2023년), 사상스마트시티 조성(~2030년),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대형 도로사업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기 위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 또한 기존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더욱 심화·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11월초 전국 최초로 개최하였던 ‘지역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 행사 등과 같이 건설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올 한해도 건설경기는 상승곡선을 그려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환경에 많은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아울러 신축년 새해가 더 큰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회의 및 행사



01 제4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11일 「2020회계연도 제4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12대 부산사회 임원이 선출된 후 첫 회의로 김세원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회원감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부회장을 선출했으며, 협회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02 제12대 운영위원 및 감사 합동연수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제12대 회장단, 운영위원 및 감사 2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운영위원 및 감사 합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 선출된 제12대 운영위원 및 감사 간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협회와 부산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역사문화탐방으로 견문을 넓힘으로서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되었으며,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일원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진안 마이산 탐사 등을 탐방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03 제2차 임원연석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일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제2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2대 김세원 회장 인준서 전달과 함께 부회장, 감사의 인준서 및 임원 선임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제11대 부회장(옥산건설(주) 대표이사 유재봉, (주)성덕건설 대표이사 김경식) 및 감사((주)주일건설 대표이사 박강일, (주)건양산업 대표이사 정종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과 2020 회계연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 • 제12대 자문위원 위촉 현황

(연장자순)

연번	상호	대표자	비고
1	(주)주일건설	박강일	
2	동아정밀공업사	윤병화	
3	(주)제일공사	박수근	
4	한일금속공업사	주병규	
5	(주)라이프하우징	이형민	
6	태영건설(주)	박판용	
7	에스제이건설(주)	이소영	
8	수영석재산업(주)	문기찬	

연번	상호	대표자	비고
9	동림건설(주)	최문학	
10	다림조경(주)	이경훈	
11	(주)삼신퍼스틸	임호성	
12	옥산건설(주)	유재봉	
13	(주)흥산건설산업	강용호	
14	(주)건양산업	정종원	
15	(주)통영산업건설	강재준	
16	(주)부근건설	신종근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이 「지역건설업체와 건설대기업 상생데이」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11월 6일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및 로비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등 건설관계관, 건설대기업 17개사, Scale Up 실시 전문건설업체 5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업체와 건설대기업 상생데이」를 개최했다.

김세원 회장은 "역량 강화(Scale Up 사업)를 통한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부산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 대형 민간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들이 70% 이상 참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며, 지역건설업체와 건설대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날 1부 행사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주재 건설대기업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2부 행사는 협력업체 등록 등을 위한 건설대기업과 Scale Up 실시 전문건설업체 간 1:1 현장 상담이 실시되었다.



## 02 서병수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 회장단 및 임원은 11월 9일 서병수 국회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침체된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에 적극적인 동참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공공사 낙찰률 향상이 필요하며, 건설인력이 부족한 만큼, 건설현장의 외국인 도입 확대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개선을 건의하는 등 부산전문건설업계의 현안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서병수 국회의원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산사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03 부산광역시 2020년 하반기 대형공사장 현장 방문조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친환경리조트 건설현장」 등 지역 내 8개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부산사회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공중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고, 시공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노동관계법령 온라인 교육

1. 근로시간 단축 50인 기업 제도기간 종료

#### 올해 말 주52시간제 제도기간 종료됩니다

-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50인 기업 제도기간(1년) 종료, 2021년 7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
- 300인 이상: '18.7.1(특별감정평가) 제정된 21명 임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30미만 사업장 현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가능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현시적 인정: '21.7.1 ~ '22.12.31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KOSCA

## 04 노동관계법령 온라인교육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8일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건설 노무업무 관련 강습회를 「노동관계법령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생방송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온라인 교육에서는 주52시간제 제도기간 종료 등의 2021년 시행 노동관계 법령, 건설업 근로시간 관리방안, 건설업 임금관리 방안, 건설업 사회보험 및 건설업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협회 중앙회 최정일 자문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부산사회는 이날 교육을 시청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교육교재와 강의 동영상은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에 게재해 회원사들이 수시로 활용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회장 동정

### 이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 「스테이스트롱 캠페인」 동참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11월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는 「스테이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세원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해주시는 모든 방역·의료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캠페인에 먼저 참여한 서울시회 노석순 회장의 릴레이를 이어받은 김세원 회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광주사회 박병철 회장을 지목해 바통을 넘겼다.





사회공헌활동

01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외 2곳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16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동래구장애인복지관(관장 김종윤),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호),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 이상 3곳의 기관에 총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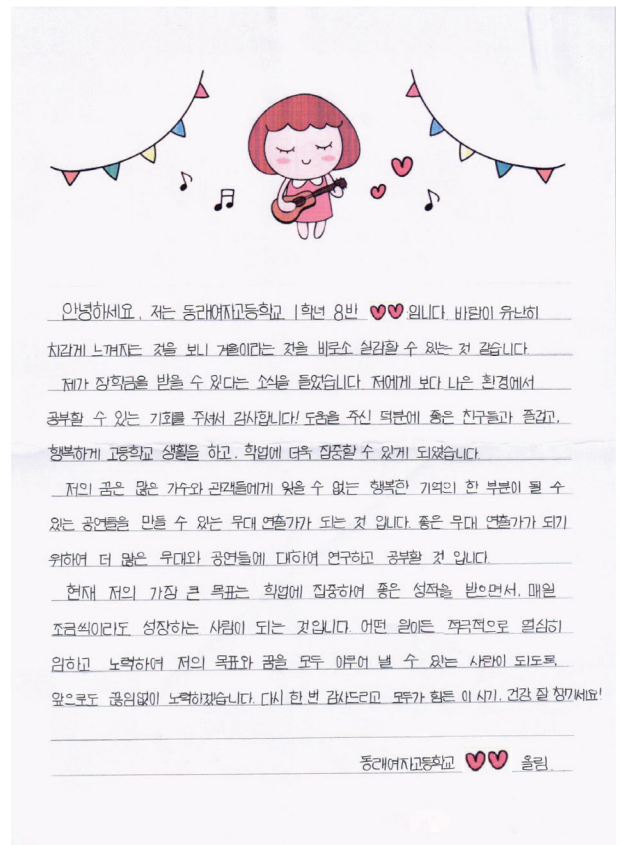


02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부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16일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김석준 교육감에게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성금 1,5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부산시교육청과의 교육결연활동의 일환으로 학습환경과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사회는 그동안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메세나 활동을 2011년부터 꾸준히 전개하며, 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교육기부금(장학금) 지원학생 감사편지

## 03 2020 사랑의 연탄나눔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독거노인과 재가 장애인 등을 돕기 위해 연탄 20,000장(1,500만 원)을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철)을 통해 동구 좌동 매축지 마을에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년에 비해 도움의 손길이 많이 줄어든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랑의 연탄나눔은 예전과 달리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별도의 봉사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전달식만 가졌다.



## 04 부산진구노인복지관 김장나눔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일 부산진구노인복지관(관장 이경선)을 방문하여 지역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한 김장나눔사업에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김장나눔 지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05 동래구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돕기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청장 김우룡)을 방문하여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우리동네 이웃사촌,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확산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는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06 금정구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돕기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청장 정미영)을 방문하여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위기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금' 500만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꾸준히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07 부산진구 장애인협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협회(회장 한삼청)를 방문하여 부산진구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김세원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많이 줄었지만, 협회가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건설경제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회원 소식



### 01 2020년 부산전문건설인 가을 단합산행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5일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2020년 부산전문건설인 가을 단합산행」을 실시했다.

회원사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산행지는 한려수도에 흠뻑려진 아름다운 섬과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해금강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제도 최고의 명소 해금강 우제봉으로, 해금강 유람선선착장에서 출발해 트레킹 코스를 따라 전망대까지 오르는 코스로 회원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며,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02 (주)동해공영 2020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금상 수상

부산시회 회원사인 (주)동해공영(대표이사 이상백)이 개발한 소방관 안전진입(SE)창 발명특허 제품(열관류율 1.235W/m<sup>2</sup>K)이 「202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2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수발명과 기술선진국 도약을 위한 신기술 발굴·시상과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및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행사목적으로 열렸으며, 금상 수상자인 (주)동해공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 코엑스(COEX) Hall C홀에 제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주)동해공영 이상백 대표이사 수상사진(왼쪽 첫 번째)

(주)동해공영 이상백 대표이사는 1996년에 회사 설립 이후 부산에 본사를 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전문건설업체로 현재 4개의 KS제품과 소방관 진입창 및 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수주지원

### 01 건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근절 추진

현행 계약법령에서는 공사와 물품·용역의 입찰을 구분하고 있으며, 계약예규에서도 공사와 물품제조의 원가계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공사를 현장 설치도라는 명목으로 물품구매 또는 용역에 포함시켜 물품·용역 계약으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전문건설업의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있으며, 물품·용역으로 원가계산 내역을 구성함에 따라 건설공사 원가 계산과 비교 시 보험료 등의 각종 경비누락,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 상이로 인해 회원사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산시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시회는 자재의 구매·납품 등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물품·용역 계약 발주 시 건설공사(현장설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물품·용역계약이 아닌 건설공사 계약으로 발주해 줄 것을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추진했다.

### 02 부산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산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추진

#### 대연8구역, 문현1구역, 남천2구역, 용호3구역 재개발현장

부산시회는 10월 26일 대연8구역【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및 문현1구역【시공사 : 지에스건설(주)】, 12월 23일 남천2구역【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및 용호3구역【시공사 : 효성중공업(주), (주)태영건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부산지역에서 시행·시행예정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대부분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앙1군 대형 건설업체가 선정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수도권 자사 연고지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어, 부산시민의 분양대금 수천억 원이 수도권 등 타 사도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회는 지역 건설장비 및 생산 건설자재를 사용하고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부산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됨을 강조하며, 각 조합 및 시공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시회는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함께 중앙1군 건설대기업 본사를 방문하여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건설현장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등 회원사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03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 협조

#### 실내리모델링,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구거·암거보수공사 등에 해당 전문건설업 입찰참여 기회 제공 협조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실내리모델링공사,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구거·암거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거나, 특히·신기술 반영, 기존의 발주관행 등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회원사 수주지원을 위해 매년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고, 공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종 이상 전문공사의 복합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신기술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의 방법으로써 건설업의 업무영역이 될 수 없으며, 특히·신기술은 대부분 기술협약체결로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규제라고 밝혔다.

### 04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정정 추진

####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부산시회는 경쟁력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정책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부산에서 창출한 가치가 최대한 다시 부산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부산소재 중소기업체의 물량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서 2020. 12. 8. 발주한 「월내항 정비 사업」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입찰공고 되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부산시회는 12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을 대상으로 동 공사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로 정정 발주하여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49% 이상 참여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서는 부산시회의 요청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로 동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정정하였으며, 향후 발주공사도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 01 건설공사 발주 시 나라장터에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게재 의무화 건의

부산시회는 10월 12일 공공공사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에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게재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서는 공공공사는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과 시간·인원부족으로 개별 발주기관을 매년 방문할 수 없어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검토없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에 맞춘 설계,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발주 관행으로 인한 설계누락 및 품의할증 미반영 등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이윤은 고사하고 적자시공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업체에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라장터(G2B)에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문과 함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 02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 건의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공사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것이라 기대한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예산에 맞춘 설계, 설계누락 및 품의 할증 미반영 등으로 이윤은 고사하고 적자시공으로 인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입찰과정에서 공사비 부족 등을 알게 되더라도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서류 미제출 또는 심사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에 따라, 건설업체는 ‘올머겨져 먹기’ 식으로 적자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2019.9.17.)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아직 개선되지 않아 부산시회는 11월 9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입찰과정에서 입찰 불참, 심사서류 미제출·심사포기 등의 사유를 부정당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 03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11월 19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앙회를 경유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부산시회 의견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 반대

### 2. 세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해위험 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등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제정은 발주자 및 시공사 모두에게 법령 혼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임.

-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를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곧바로 사업주 등이 형사책임을 지는 등 책임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잉처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 건설사업자와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 원 이하)'로 이미 무거운데 이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정(안)은 정상적인 건설사업자의 경영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구축되어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로 사료됨.

## 04 건설공사 계약이행보증금 인하 건의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들의 기업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약법령 개정과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를 통해 수의계약 대상 확대, 각종 보증금 인하 등의 임시적 제도를 마련·시행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건설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용역의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과 차별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기업경영 부담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부산시회는 12월 2일 건설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물품·용역계약의 이행보증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을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 05 지역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

### 지역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부산교통공사에 건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더불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부산시회는 12월 2일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부산 전문건설업체가 보다 많이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설현장 관리 및 실태 점검 강화를 통해 하도급 참여율이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산교통공사(회계처)에 건의했다.

## 06 건설산업기본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1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유지보수공사” 제외대상 조문 일부 수정

■ 「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를 유지보수공사 제외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을 필요로 하는 종합공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마치 종합건설업만이 시설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특화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전문공사로서 시설물에 각종 구조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가 많으므로(예 : 외벽 금속구조물 설치공사, 판넬교체공사, 외벽 돌붙임공사, 조적공사, 커튼월 창호공사 등) 유지보수공사의 개념이 개선되어야 함.

###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시 주력분야의 지정 취소” 삭제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력분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임.

## 2020년 4/4분기 신기술 현황



- 지정번호(지정일자): 903(2020.10.07)
- 개발업체: 코오롱글로벌(주), (주)스틸텍, (주)동해종합기술공사

### 》》 신기술명

상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단면의 격자지보재 제작 기술

### 》》 주요 내용

이형봉강을 사용하여 격자형태의 입체적 형상으로 제작되고 슛크리트 타설 시 배면공극 발생 방지 및 일체화 거동을 유도하며, 사변형 단면으로 구성된 격자지보재 제작 기술

- 지정번호(지정일자): 904(2020.10.07)
- 개발업체: (주)신원RPC, 롯데건설(주), (주)한화건설, (주)삼안, (주)흥화

### 》》 신기술명

분리 가능한 브라켓을 적용하는 콘크리트 및 강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BBCM 공법)

### 》》 주요 내용

고소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및 시공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부 시공 시 콘크리트거더에는 사전에 매립된 기초볼트, 강거더에는 상부플랜지 두께변화에 간섭 없이 L형 리브데크(Rib-Deck)의 3번지지가 가능하도록 강거더에 부착된 거셋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설치하고 캔틸레버의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는 분리 가능한 브라켓을 적용한 콘크리트 교량 및 강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05(2020.10.22.)
- 개발업체: 태릉건설(주), (주)삼안

### 》》 신기술명

아스팔트 매트를 이용한 중력식 항만구조물의 저면 마찰력 증대 공법

### 》》 주요 내용

마찰계수 0.75 이상, 압축 및 휨강도 2N/mm<sup>2</sup> 이상, 휨변형량 3mm 이상, 비중 2.2 이상을 충족하는 아스팔트 매트 혼합물을 배합하고 가열하여 단위중량이 2.2Ton/m<sup>3</sup>이상의 판상형(두께 8~10cm)으로 제작하여, 인양용 연결철물과 보강재를 매립하여 제작하고 인양 시에는 인양철물과 인양고리를 이용하며, 설치 후에는 인양고리를 제거하고 양카철물로 대체하여 중력식 구조물과 일체화시켜 사석마운드와의 저면 마찰계수를 증대시키는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06(2020.10.26.)
- 개발업체: (주)삼성씨앤엠, 백양엔지니어링(주)

## 》》 신기술명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를 활용하여 실라노 복합재와 불소폴리머 코팅재를 도장하는 강구조물 보수공법(MBP System)

## 》》 주요 내용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연마재 회수분리 및 이송, 페인트 조각 분리, 재생호퍼 분사, 집진설비, 수집처리)를 활용하여 강구조물 표면처리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분리 및 집진하여 연마재 재사용(연마재 재생 회수율 80% 이상)이 가능하고 바탕처리 이후 실라노세라믹 복합 도장재와 불소모노머 아크릴 폴리올 합성수지 코팅재를 도장하여 기존에 열화된 도장면과 볼트부, 연결판 등 협소구간까지 도막을 제거할 수 있는 강구조물 보수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08(2020.11.06.)
- 개발업체: (주)흥신이엔씨, 강산건설(주), 양우건설(주), 대구광역시(권영진)

## 》》 신기술명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성한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도막재를 활용한 누수감지형 노출 복합방수공법

## 》》 주요 내용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합성고분자계 시트재와 수 팽창성 아크릴레이트를 복합한 방수시트 상부에 탄성도막재를 도포하는 기술로서, 시트 포설 과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며, 합성고분자계 시트재와 아크릴레이트 합지 생산시스템 구축 및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한 복합시트를 생산함으로써 재료 간 박라박락을 방지하고, 방수층 손상부에 물 침투 시 아크릴레이트가 팽창하여 차수 효과를 확보할 뿐 아니라 누수부위가 팽창함으로써 누수부 탐지가 용이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07(2020.11.05.)
- 개발업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스비비(주), (주)이산

## 》》 신기술명

바이오폴리머(피마자유)와 골재를 활용한 호안사면 조성기술 및 하상 보호기술

## 》》 주요 내용

홍수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소재와 건조된 골재를 믹서기로 혼합하고, 혼합된 골재를 하천호안에 설치하는 호안사면 조성기술과 하천의 보 및 낙차공 구조물 하단에 설치하여 다층다공성 형태로 하상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 지정번호(지정일자): 909(2020.11.30.)
- 개발업체: (주)석엔지니어링,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신기술명

건조면 또는 습윤면 피막재와 수동 또는 자동 분사장비를 사용하여 벨록스 유 코트를 도포하는 초속경화 방수공법 (Velox U-Coat System)

## 》》 주요 내용

시공환경에 따라 바이오폴리올 혼합구성의 건조면 전용 피막 도포층과 세라믹 결합수지 구성의 습윤면 전용 피막층을 선택적으로 적용 후, 현장조건에 맞추어 전기식제어 수동분사장비, 자동분사장비를 사용하여 원형 중공입자형 혼합 재생 코트를 도포하는 초속경화 방수공법

### 출처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끊임없는 성찰로 부지런히 달려온 건담인  
(주)삼신퍼스틸 대표이사 **임 호 성**



“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그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게 평생 소원이다. 시인 윤동주가 ‘서시’에서 이렇게 외쳤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런 완벽한 삶은 없을 터이다.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현실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임호성(69) (주)삼신퍼스틸 대표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뚜벅뚜벅 ‘부끄럼 없는 삶’을 향해 걸어나간다.

회사이름 퍼스틸은 퍼니처(가구)와 스틸(금속, 철)의 합성어. 따라서 금속가구회사를 뜻한다. 경남 의령이 고향이지만 초등학교 때 상경했고, 1970년대 부산에 정착해 가구업을 시작했으니 토박이 사업가인 셈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조 및 유통업이었으나 정부 정책이 분할발주에서 턴키발주(일괄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도 전문건설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업체에게 하청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업종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죠. 1999년 금속창호와 실내건축(인테리어) 면허를 딴 후 삼신퍼스틸을 설립했습니다.”

임 대표는 홀로서기 이전 삼신(三新)이라는 이름의 회사에 얽힌 뼈아픈 비화를 들려주었다. “세 명이 동업한 회사였죠. 동양강철이라는 회사에 함께 몸담았던 선배 두 분과 함께 창업했어요. 1986년엔 코스닥 상장을 했던 중견기업이었죠. 1994년 연매출이 780억 원에 종업원이 800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임 대표는 2대 주주였다.

그런데, 아뿔싸. 그토록 잘 나가던 회사가 1995년 부도를 맞고야 말았다. 당시 미국에서 대형 수출물량을 주문받고 설비 증설에 200여 억 원을 쏟아부을 때였다. 그때 임 대표는 부산에 11층 건물을 확보하고 나름 성공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충별로 주니어 가구, 연구실가구, 임원실가구 등으로 나눠 꾸밀 생각이었는데 부도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부도 원인은 허술한 인력관리에 있었다. 설비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해외연수를 보낸 엘리트 직원 7명이 몽땅 대기업에 스카웃 되면서 사달이 나버렸던 것이다. “수 백 억을 들인 설비를 관리할 수 없게 됐으니 회사가 견딜 수가 없었죠. 더구나 당시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대우그룹이 공중분해 되면서 치명타를 맞게 됐습니다.”

임 대표는 부산의 건물과 집 한 채를 제외한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됐지만 그가 할 일은 없었다. 재산을 건질 여지가 없었다. 인천을 출발해 군산, 광주, 여수, 통영, 울산 등 전국 대리점을 도는 유랑생활이 계속됐다. “한 바퀴 도는데 몇 달씩 걸렸습니다. 모든 게 싫더라고요. 봉황을 꿈꿨는데 한 순간 참새가 되어 있더군요. 허탈해서 그저 술잔만 기울이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절친이 그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조언을 했다. “장남인 제가 노모를 잘 모셔야 한다면서, 그리고 지금 가진 재산만으로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심어주더군요. 그 순간 도통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렸던 마음의 안개가 확 걷힙니다.”

삼신퍼스틸을 세운 그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다. 성실과 신뢰, 그리고 업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으로 시장을 파고들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일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 그가 마음속에 새긴 사자성어다. 제1 행동수칙이 바로 ‘한 점 부끄럼 없는 기업활동’이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고객을 배려하고

원원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친 결과 우리나라 4대 은행에 유일하게 가구를 공급하는 업체로 키워냈다. 배타성이 강하기로 소문난 수도권 시장도 뚫은 경험이 있기에 자신감이 넘쳐난다. “가구를 납품하려고 서울에 지사, 경기도 광주시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금융기관에 납품할 가구는 구평동 공장에서 맡고 있죠.”

그는 부산의 전문건설업계에 대해 상호 타협과 공생하는 문화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작은 빵을 함께 먹기 모자랍니다. 파이를 키워야 해요. 시장을 넓히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정된 시장에 진입이 너무 쉽게 돼 있으니 문제죠.”

그에게 ‘부끄럼 없는 기업인의 삶’에 대해 묻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와 영업, 구매, 노무 등 일인다역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은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그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 “골프가 좋아 3년간 열심히 운동해서 싱글이 되어 돌아왔더니 회사 문패가 바뀌었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으로서 그의 꿈은 장수기업이다. 100년 기업의 키워드는 ‘적응’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적응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게 임 대표의 경영철학이다. 그는 자전거를 예로 들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움직입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도,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서면 당연히 넘어지죠.”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향한 그의 사회봉사도 현재진행형이다. 공사 중 부도난 아파트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보다 못한 그는 직접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섰다. 수십 차레 서울의 지주를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땅을 기부 받아 준공허가를 받게 한 그의 일화는 지금도 ‘동네의 전설’로 회자된다.

글 · 최원열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주)통영산업건설 대표이사 **강 재 준**



“  
세월지나 생각하니  
만사가 아무것도 아니며,  
걱정이 태산 같으나  
한 번 소리쳐 웃으면  
그만인 것을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매가 그윽하고 깊다. 직감적으로 프로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40년 가까이 페인트를 다룬 강재준(63) (주)통영산업건설 대표의 첫 인상은 장인기질 바로 그것이었다.

26살에 일찌감치 페인트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부산지역 도장부문에 최고참급에 속한다. 통영이 고향인 그는 군 제대 후 부산 친구집에 왔다가 페인트업에 몸을 담게 됐다. “친구 권유로 이력서를 들고 당시 유명했던 공작표페인트를 찾아갔더니 바로 취업이 되더군요”

어렵고 힘든 장인의 길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회사 숙직실에서 3년간 지내며 철야작업을 밥 먹듯 하면서 일을 익혔다.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며 퇴근하는 그 야말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인생에 승부수를 던진 이상 이를 악물고 견뎌냈



죠. 관련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며 얻는 희열과 성취감 하나로요.” 창고 출하부터 시작해서, 재고 확인과 출고를 거쳐 3개월 후 제품 담당을 맡았다. “7년간 페인트업 전반에 걸친 도제 생활을 거친 후 제 사업을 하기 위해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글썄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게 아닌가. 당시 지역 총판(도매상) 중 간판을 제일 크게 만들고 13개 회사 제품을 들여와 근사한 가게를 차렸는데 참으로 황당했다. 젊고 유능한 회사원으로 성장한 그를 내보낼 수 없다며 무려 1년간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구슬렸다. 그는 할 수 없이 총판을 아내에게 맡기고, 회사에 출근했지만 독립하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회사의 배려로 그는 총판 내부부터 깔끔하게 정리하며 힘차게 출발했다. “당시 페인트 대리점 대부분이 매장 내부가 지저분했습니다. 이를 고쳐서 고객들이 감탄할 정도로 제품 진열이 잘 되어 있는 전자제품 대리점처럼 꾸며놨더니 단박에 입소문이 나더군요.” 그제 페인트 장인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다.

강 대표는 앞을 내다보는 눈이 밝은 듯하다. 1996년 단종면허를 내고 고향 이름을 딴 ‘통영산업건설’을 세웠다. 그리고 판매상인 부일페인트산업사와 도장공사를 하는 통영산업건설로 사업을 즉시 분리시켰다. 총판 개념이 사라질 것을 예견한 탁월한 결정이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페인트 유통질서에 혁명적인 변화가 왔다. 유통단계가 대폭 축소되면서 총판이 사라졌다. 하지만 도장공사업을 추가하면서 사업 리스크를 분산시킨 그는 위기를 잘 헤쳐나갔다. 어음 결제가 일반적이었던 당시 업계 선두주자였던 그는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부도 도미노현상으로 수많은 회사가 무너졌어요. 저는 보증서를 받아야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죠.”

그는 부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공사’를 점찍었다.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도장공사부터 시작했다. 실력과 성실성, 그리고 신뢰를 인정받았던 터라 3차례나 대한주택공사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됐고, 원도급자(대형건설사)들까지 나서 공사를 주는 바람에 사업은 급성장세를 탔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 그 역시 단 한 차례 어음 부도를 경험했다. “보증서를 받았지만 어음 기한 전에 보증기간 연장 갱신하지 않는 바람에 쓴맛을 봤죠.”

그의 사업은 이제 탄탄한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 도장공사업에서 방수와 석공사, 시설물유지보수업으로 분야를 넓혔다. 영남지역에서 페인트 소요량이 가장 많기에 원가경쟁력도 확보했다.

강 대표의 장인 정신은 특허로 이어졌다. 2014년 부틸고무를 이용한 균열보수공법 특허로 수익을 대폭 늘렸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5년 후 도장공법 향상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경쟁 업체들이 균열보수공법에 치중할 때 재빨리 기능성도료를 사용한 실리콘 도장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면서 한발 앞서나갔다. “도장 수명을 기존 제품에 비해 배 가량 늘려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는 지금 미래의 페인트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죠.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강 대표의 미래 페인트업은 뭘까? 바로 친환경성이다. “4차산업 방향과 환경에 맞는 도장솔루션을 찾아내야만 해요. 여기에 더해 도장 수명연장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는 장인 정신이 뒷받침돼야 대대로 이어가는 장수기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꿈꾸고 노력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강 대표의 영업 제1원칙은 ‘절대 바가지 씌우지 마라’. 돈을 벌려면 욕심을 없애야 한다는 역설의 법칙이다.

하지만 기업의 성공이 곧 삶의 성공은 아닌 법. 그는 어차피 돈을 벌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닌 이상 좋은데 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의 사회회원 못지않게 사회봉사(그는 사단법인 이웃나눔회 회장을 맡고 있다)도 중요하단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가 나지막이 읊조린다. ‘세월지나 생각하니 만사가 아무것도 아니며, 걱정이 태산 같으나 한 번 소리쳐 웃으면 그만인 것을. 인생사 공수래 공수거’. 참으로 멋진 구절이다. 듣고 있자니 가수 김국환의 ‘타타타’ 가사가 뇌리를 스친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수지맞는 장사잖소/알몸으로 태어나서/웃 한 벌은 건졌잖소/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무슨 재미~그런게 덤이잖소/아하하하하’.

글 · 최원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4호(2020.9.24.)】

##### 01 주요내용

-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 열람 및 교부
-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리책임 개선
  -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
  - ※ 기존의 경우 근로자 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
-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약을 설정하되, 연장기간의 상한은 당초기간의 2배 이내로 제한
  - ※ 기존의 경우 발주기관이 일방적인 특약 설정을 통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무리하게 연장

##### 02 시행일: 2020. 12. 24.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7543호(2020.10.20.)】

##### 01 주요내용

-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발주자도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제38조 제1항 개정)

##### 02 시행일: 2021. 1. 2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2020.11.16.)】

#### 01 주요내용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심사 (제2조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항 제2호 개정사항 반영 (별표1)
  - 발주자 예정가격의 60% ⇒ 64%

#### 02 시행일: 2020. 11. 16.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안내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20.11.17)되어 '20. 11. 27일부터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20호(2019. 11. 26.)】※ 2020. 11. 27. 시행

#### 01 주요내용

- 건설공사 전자카드 의무적용 사업장 단계적 확대(부칙 제2조)
  - ('20. 11. 27)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 ('22. 7. 1) 공공 50억, 민간 100억 이상 → ('24. 1. 1)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의무(제12조의2 제3항)
  - 원수급인 부담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원가계상(제10조의2 제1항)
  - 퇴직공제 가입비용에 포함
- 전자카드 미발급 사업주 과태료(별표 제3호)
  -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 02 개정·시행

- 국무회의 의결·확정 : '20. 11. 17
- 시행일 : '20. 11. 27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기타법령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호(2020.12.1.)]

**01 주요내용**

-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을 상향
  -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감경비율 20% ⇒ 30% 이내
  -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감경비율 10% ⇒ 20% 이내
-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 1년 이상 ~ 2년 미만 경우 최대 20% 미만, 2년 이상 경우 최대 50% 미만 가중
-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 정비

**02 시행일: 2020. 12. 1. 부터 (효력만료 3년, 2023. 11. 30)**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국도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1156호(2020.11.10.)]

**01 부실벌점 제도 개선(별표8)**

- 산정방식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제3호)
- 부실 중요도에 따라 벌점 세분화(제5호 가~다목)

■ 경감기준 도입(제5호 바목)

-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20~59% 벌점 경감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1반기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20%	36%	49%	59%

- 반기별 10회 이상 정검 받은 사업자 중 벌점부과율이 20% 이하인 경우 0.2 ~ 1점 벌점 경감

관리우수 비율*	95%이상	90 ~ 95%	80 ~ 90%
경감점수	1점	0.5점	0.2점

\* 관리우수 비율 = (벌점 미부과 점검현장 수) / (반기별 점검현장 수)

**02 시행일:** 2021. 1. 1. 부터(단, 벌점 산정방법 및 적용 개정사항은 2023. 1. 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기타법령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1245호(2020.12.8.)]

### 01 주요내용

■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제103조의2 신설)

-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공법·공사 특성상 연속시공이 필요한 경우,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된 경우 등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규정**(제101조의5 신설)

-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설공사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제101조의6 신설)

- 건설공사의 개요,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포함

■ **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제43조의2, 별표4의2 신설)

- 위반행위에 따라 명령, 업무정지 3~12개월, 대행취소 등 처분 규정

**02 시행일:** 2020. 12. 10.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기타법령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92호(2020.12.14.)]

**01 주요내용**

-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대형 갱신절차 도입**(제17조의2 신설)
  -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추가**(제59조 제1항 제4호 신설)
  - 건설기계(천공기, 향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의 작업절차 및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제59조의2, 별표7의2 신설)
  - 건설공사의 개요,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정**(별표7)
  -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계획,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 대비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 등 추가

**02 시행일: 2020. 12. 14.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기타법령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공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0호(2020.12.28.)]

**01 주요내용**

- **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자 판단 사항** (제4조)
  - 주된공사·부대공사: 건설공사의 세부내역 검토
  - 종합공사·전문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여부 검토
- **부대공사 판단기준 및 세부 적용방법 및 사례** (제5조 및 별표 1)
  -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영 제21조 제1항·제2항
    - ※ 발주자 고려사항(제3항)
      - ①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
      - ②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 초과 여부
      - ③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역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어건

#### ■ 공사의 시공자격 (제6조·제7조)

-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을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시 입찰참가 가능
- 상호시장 진출 시 요건 규정(법 제16조, 영 제19조 등)
- ※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 건설공사 발주방식 (제8조)

- (상호시장 진출 등) 안 제6조 및 제7조 시공자격에 따라 입찰참가 허용
- ※ 제한 시 입찰공고문 기재
- (종합공사 발주) 주된 공사 구성업종 및 구성비율 입찰공고문 기재

#### ■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제9조)

- (유지보수공사)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공사
- (입찰 자격)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 시공자격을 갖춘 전문, 종합건설사업자
- ※ 제한 시 사유 입찰공고문 기재
- (2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유지보수공사 발주 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 발주하고, 주된공사 구성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 기재

#### ■ 시공경험평가 시 실적확인서 제출 및 발급기관 등 (제10조)

- (종합→전문공사 입찰) 대한건설협회 발급
- (전문→종합공사 입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 (종합·전문→유지보수공사 입찰) 국토부장관이 영 제87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 (제11조)

- (등록기준 확인)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 (입찰공고문 반영 사항) 시공 중 유지 조건 및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확인 방법)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
- (등록기준 확인 예외)
  - ① 2개 업종 이상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하도급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 갖춘 경우

#### ■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의무 및 하도급 제한 (제12조)

- 입찰공고문 반영 및 시공과정에서 위반여부 확인
-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 사전에 입찰공고문 사유 기재,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을 반영
- ※ (제6조~제12조)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업역개편과 관련한 발주 사례 및 해설 (제13조, 별표 3)

- (별표 3) 입찰참가자격 등 반영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 02 시행일: 2021.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고시 제정·공포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2021.1.1. 부터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을 제정·공포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호(2020.12.28.)]

**01 주요내용**

■ 상호실적 인정기준

- 2020년 12월 31일 이전

- (종합 ⇒ 전문공사) 별표의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 ※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전문업종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
- (전문 ⇒ 종합공사) 전문공사 실적 중 해당 종합업종 실적을 인정
  - ※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종합업종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

- 2021년 1월 1일 이후

-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

**02 시행일:** 2021.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건설업종 개편,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28호(2020.12.29.)]

**01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종 개편

- (업종 수) 29개 업종 → 14개 업종 (영 별표1)
- (등록기준) 자본금 1.5억 원, 기술인력 2인\* (영 별표 2)
  - \* 예외) 포장(3인), 철도궤도(5인), 철강구조물(4인), 준설(5인), 석도(3인)를 주력분야로 지정받는 경우는 주력분야 기술능력·시설·장비기준을 충족
- (시행시기) 통합 전문업종은 '22.1.1부터 시행 (영 부칙 제1조)
  - 공공공사 : '22.1.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민간은 시행일 이전에는 대업종 또는 종전 업종으로도 발주 가능)
  - 민간공사 : '23.1.1. 부터 적용



- (경과조치) 종전에 등록된 업종은 통합된 업종으로 전환됨
  - 주력분야의 경우 종전에 등록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가 주력 분야로 등록됨(시설물유지관리업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제외) (영 부칙 제7조 및 제10조)

#### ■ 주력분야 등록 및 업무범위

- (등록신청) 건설업 등록 시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분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영 제7조의2)
- (구분기준) 현재 전문업종(27개) 기준으로 분류 (영 별표 2)
- (지정요건) 2개이상 주력분야 지정 시 기술자 1인 중복인정 (영 제16조 제5항)
- (업무범위 제한)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주력분야 지정을 받아야만 수행 가능한 공사 종류명시 (별표1 비고 제4호)
  -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설치공사, 가스난방공사(가스2종 3종, 난방 1·2·3종)

#### ■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 (유효기간) '23.12.31까지 효력을 가짐 (영 부칙 제2조)
- 도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 제6항)
  - 업종 전환(전문 또는 종합)후에도 종전 시설물 지위(입찰참가자격) 인정
- 자율 전환 시 특례 (영 부칙 제6조)
  - (자율전환 기간) '22.1.1~'23.12.31
  - (전환가능 업종) 전문업종\* 중 3개 또는 종합업종으로 전환가능
    - ※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철콘, 상하수도
  - (등록기준 유예) 자율전환 기간 내 전문 또는 종합업종으로 전환 시 3년간('24~'26) 등록기준 충족 유예 (영 부칙 제6조 제3항)
- 영세업체 등록기준 추가 3년 유예 (안 부칙 제6조 제4항)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7~'29까지 추가유예
    - \* 시평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업체 ('21년 초 고시 예정)
- 등록기준 심사 관련 (부칙 제6조 제5항)
  - 유예기간 만료날('26.12월 또는 영세업체의 경우 '29.12월)까지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신청 및 주력분야 지정 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함
- 특례 적용 대상 (부칙 제6조 제1항)
  - 입법예고일('20.9.16) 이전에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신청을 한 자
- 자율전환 혜택 및 영세업체 보호제도 근거 마련 (영 부칙 제6조 제4항)
  - 전환실적 가감산 등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전환 및 추가 특례

- (적용대상) 영 시행('22.1) 이전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업종전환 또는 추가 등록을 '21.12.31까지 등록관청에 신청(영 부칙 제5조 제1항)
- 업종 전환 및 업종추가 관련(영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① 업종전환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
  - ② 업종추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추가 등록
    - 주력분야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및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요건 : 3년간('18~'20) 파일공사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실적이 각각 3억 원 이상인 경우
- 등록기준 유예 : 업종 추가에 따른 등록기준 유예\*
- \* 등록기준 충족 : '24.12.31까지 등록요건을 갖춰야 함

○(실적전환) 업종전환 또는 추가한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실적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음 (영 부칙 제5조 제4항)

### ■ 시범사업

○대업종 시행('22.1월) 전에 국가·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발주공사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영 부칙 제4조)

### ■ 업종개편에 따른 타 법령 개정사항

- 14개 전문건설업종은 개편된 전문건설업종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주력분야 등록한 자 인용 (부칙 제9조 제2항)
- 유효기간 만료일('23.12.31)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부칙 제6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인용 (부칙 제9조 제3항)

## 02 시행일: 2022.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2020.12.28.)]

#### 01 주요내용

-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집행 시 설치비용 반영에 대한 명확화(제2조의2)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발주기관이 사용토록 한 혁신제품(자재)의 문제로 공사이행 불가 및 하자 발생시 건설업체에 대한 책임 전가 금지(제2조의6)

#### 02 시행일: 2021. 1. 1. 부터 ※ 제2조의6 : 2021. 4. 1. 부터 시행

### 적격심사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6호(2020.12.28.)]

#### 01 주요내용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
  - 예정가격 대비 86.745% → 87.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신설
  - 시공경험 평가
  - 경영상태(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신인도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시 품질관리비 제외
-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완화

**02 시행일:** 2021. 1. 1. 부터  
 ※ 입찰가격 평가시 품질관리비 제외 조항 : 2021. 4. 1. 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참·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동계약 운영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2020.12.28.)]

**01 주요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 종합·전문업체 관계없이 주·부계약자 구성 가능
  - 금액제한 폐지(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모든 종합공사)

**02 시행일:** 2021.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참·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1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2020.12.24.)]

**01 주요내용**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
  - 예정가격 대비 86.745% → 87.745%
- 종합·전문공사의 금액별 평가 구간 일원화
  -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신설)의 경우 적격심사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5년간 실적"에서 "최근 3년 이상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정
  - ※ 상세내용은 협회문서 전건협 제67호(2021.1.14)로 안내드렸으며, 부산사회 홈페이지 팝업창(<http://www.kosca21.or.kr/popup/20210115.asp>)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품질관리비 제외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신설
  - 시공경험 평가
  - 경영상태(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신인도 평가

**02 시행일:** 2021. 1. 1. 부터  
 ※ 입찰가격 평가 시 품질관리비 제외 조항 : 2021. 4. 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13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12.31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금지급 기한 단축 등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1.6.30 까지 한시적 특례기간을 연장토록 고시 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주요내용**
  - 수의계약 대상 확대 - 전문공사 1억 원 → 2억 원 미만      - 종합공사 2억 원 → 4억 원 미만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도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 대금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02 시행일:** 2020. 12. 28. 부터  
**03 한시적 특례기준 적용기한:** 2021. 6. 30. 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기준 및 업체별  
 평가기준 변경 안내**

14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기준 및 업체별 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21년 7월 고시분부터 적용)되어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기준**
  -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직전년도 내의 정기결산서 기준\* 심사항목별) 기준으로 평가
    - \* 결산일자를 불문하고 `20년 정기결산서로 평균비율 산정
- 02 업체별 경영상태 비율 산정기준(증명서 발급)**
  -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로 평가

**03 유의사항**

- (12월말 외 결산법인) 종전 지침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21년 정기결산서로 평가(증명서 발급)되지 않도록 유의
- ※ 예시) 1월말 결산법인의 `21년 1월말 기준 정기결산서 → `22년 7월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5

\*\*\*  
IMPORTANT

###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안내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종합과 전문건설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개정된 국가 및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에 의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시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공시되어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부채비율	유동비율
95.86%	149.15%

**02 공시일자:** 2020. 12. 31.

**03 적용기간:** 2021. 1. 1. ~ 2021. 6. 30.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6

### 2021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안내

부산사회는 2021년 달라지는 건설업 노무 관련 제도에 대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주요내용**

-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1. 1. 1. 부터 근로시간 단축(52시간)이 적용되며, `21. 7. 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
-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적용
- 건설업 노무비율은 전년도와 동일, 월평균 보수액은 4,330,442원 적용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1.6%, 산재보험료율 3.7% 적용
- 건설업 국민연금료율은 전년도와 동일(9%), 건강보험료율 6.86% 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가 `20. 11. 27. 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1. 5. 26. 까지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 건설기능인 기능인등급제 도입 (시행 `21. 5. 27.)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01 2020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연번	사업자명	대표자	주 소
1	신한중공업(주) ※ 기계설비, 강구조, 가스1종	정선영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강양로 35
2	(주)신한코리아	김한철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9
3	요진건설산업(주) ※ 토건, 조경, 산업·환경	최은상	강원 원주시 시청로 21
4	우경건설(주) [前 화산건설(주)] ※ 토건, 조경, 시설물	김 완	경기 군포시 광정로 80
5	케이비아이동국실업(주)	김진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6	한일중공업(주)	박정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33

※ 과거 3년간(2017.1.1.~2019.12.31.)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 또는 취소 기준 추가(제32조)
  - 배합비 조작, 불량자재 공급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시험종목 변경·추가(별표2)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콘크리트표준시방서로 일원화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탄소당량 시험 추가
  - 철근 이음(기계적 이음) : 인장응력, 잔류변형량 시험 추가

**02 시행일: 2020. 10. 13.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IMPORTANT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및 동영상 강의 안내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발주자 및 건설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및 동영상 강의를 배포하였으며,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 국토교통부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동영상 강의 배포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회원전용공간 → 교육교재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마련 안내

우리협회가 공공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물량 또는 품을 삭감·누락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표준일위대가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조달청에서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 마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마련(2020.10.30)

- 표준일위대가 : 면적이나 길이 등 단위량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의 소요량을 품셈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식
- 분야 : 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문화재
- 구성 : 공종별집계표, 내역서, 일위대가, 일위대가 상세 등
  - ※ 자재, 노무비 등 단가는 물가상승에 따른 지속적 변경이 예상되어 기재하지 않음

#### 02 기대효과

- 표준품셈 적용 활성화
- 객관적 설계가격 산출
  - 품셈 수량 임의삭감 방지
- 설계내역서 표준화
  - 발주기관별 상이한 일위대가 통일 및 원가계산 신뢰성, 객관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2021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함에 따라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무병원 등록기준  
변경·강화('21.1.1)에  
따른 산림청 후속조치  
안내**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수목진료 관련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자를 구제하고자 나무병원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으나, 동 조치가 '20.12.31 이후 종료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나무병원 행정처분 유예조치 종료('20.12.31)에 따른 후속 조치**

■ 대상

- '20. 6.27 까지 등록완료 한 나무병원(1종, 2종) 중 '20.6.28 이후 변경·강화되는 등록기준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무병원
- \*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
- (1종)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2종)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조치사항

- '20.12.31 기준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을 수강 중이거나 양성교육에 선발된 대표자(또는 종사자) 소속 나무병원의 경우 자격취득 시까지 행정처분\* 유예
- 양성기관이 발급한 나무병원 수강·선발증명서를 해당 시도로 제출 시 행정처분을 자격취득 시까지 유예
- 양성교육 미이수·자체평가 불합격 등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기 발급·제출된 증명서류 효력 상실 및 사도 통보
- \*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영업정지 12개월, 3차 등록취소

■ 변경조치 적용 예외

- '20. 6.28 이후 신규 등록한 나무병원 및 '20. 6.27 이전에 등록하였으나 '20.12.31 기준 수목치료기술자 양성 교육을 수강 중이거나 양성교육에 선발되지 않은 대표자(또는 종사자) 소속 나무병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17회 카르텔 업무  
설명자료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집행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의 내용을 담아 카르텔 업무 설명자료를 제작하였다.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2021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01 운영기간:** 2020. 12. 21. ~ 2021. 2. 10.

**0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T : 051-460-1041, F : 051-460-1004)

**03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 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안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사업자 등의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이 숙지해야 할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에 대한 교육자료를 홍보하고 있어 부산사회는 회원사에 동 교육자료를 안내했다.

**01 주요내용**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완화
-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유형 구체화
  -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간주
- 보복조치로 보는 행위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보복조치로 간주
- 3배 손해배상 책임을 저야 할 행위 범위 확대
  -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단순한 기술자료 제공행위도 위법으로 규정
  - 기술자료의 '유용'단계까지 이르지 않는 기술자료의 단순 '제공' 행위 금지

- 기술유통행위조사 착수가능 기한 연장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착수가능 기한을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원사업자의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 하도급분쟁조정 의뢰 요건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조정의뢰 요건을 완화
- 경영정보요구 정당화 사유 구체화
- 신용등급의 수준을 불문하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부여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요건 강화

**02**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문의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051-460-104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보급하는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주요내용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타워크레인 등 지급장비 조종사의 부당금품 요구 근절 및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한 원사업자의 협조·의무(제8조)
  - 부당하게 결정되어 감액된 대금 청구권한 및 이로 인해 공사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시 계약해제 권리부여(32조)
  - 부당특약 설정에 따른 무효사유 확대(제45조)
  - 원도급사의 대금미지급에 따른 공사지체는 지체상금 미부과(제53조) 등
-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대표회사 지정 및 구성원 간 분담내역 명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등 공동수급체 모두 명시(표지)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과 협의 없이 원사업자와 시공 협의 등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구상(제4조)
  - 대표성은 대표회사에게 부여하되 원도급자 협의, 변경계약, 공기 연장, 감독원 대응 등은 구성원과 협의결정(제13조)
  - 하도급대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제38조) 등

**02** 시행일: 2020. 12. 1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98호(2020. 12. 18.)]

#### 01 주요내용

- 100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
  - 별표 1, 별표 2 신설
-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업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
  - 별표 1, 별표 2 개정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 제15조 제1항 개정

#### 02 시행일: 2021.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부산사회는 2021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안내**

부산시회는 2021년도 사회보험 요율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건강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9	보수월액 × 6.46%	3.23	3.23
2020	보수월액 × 6.67%	3.335	3.335
<b>2021</b>	<b>보수월액 × 6.86%</b>	<b>3.43</b>	<b>3.43</b>

- 2021년도 가입자부담 3.43%, 사용자부담 3.43%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52%(사용자 11.52%,근로자 11.52%씩 각각 부담)

**02 국민연금료율**

년 도	요 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9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2020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b>2021</b>	<b>표준소득월액의 9%</b>	<b>4.5</b>	<b>4.5</b>

- 2021년도 가입자부담 4.5%, 사용자부담 4.5%씩 각각 부담

**03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공동 부담)	16/1,000 (1.6%)	사용자부담 8/1,000(0.8%) 근로자부담 8/1,000(0.8%)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2.5/1,000 (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 (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 (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 (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 전년과 동일

**04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 \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건설공사(갑)	39	40.5	37.5 (출퇴근재해 1.5 포함)	37.3 (출퇴근재해 1.3 포함)	37 (출퇴근재해 1.0 포함)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05 노무비율(백분율)**

사업종류 \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건설공사(갑)	27 (30)	27 (30)	27 (30)	27 (30)	27 (30)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06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설업 월평균임금	3,588,357원	3,619,987원	3,906,885원	4,226,652원	4,330,442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07 최저임금**

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일급(8h)	월급(209h)
2018	7,530	60,240	1,573,770
2019	8,350	66,800	1,745,150
2020	8,590	68,720	1,795,310
2021	8,720	69,760	1,822,480

\* 최저임금은 2021.1.1 ~ 2021.12.31까지 적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 초과분]

**08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2017	75억 7천 5백만 원	812천원
2018	75억 7천 5백만 원	945천원
2019	86억 8천 1백만 원	1,048천원
2020	86억 8천 1백만 원	1,048천원
<b>2021</b>	<b>86억 8천 1백만 원</b>	<b>1,094천원</b>

\*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기관·공공기관(3.4%), 민간기업(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09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년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부담금비율	비 고
2017	0.6/1,000	0.03/1,000	
2018	0.6/1,000	0.03/1,000	
2019	0.6/1,000	0.03/1,000	
2020	0.6/1,000	0.03/1,000	
<b>2021</b>	<b>0.6/1,000</b>	<b>0.03/1,000</b>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기준)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시중노임단가) 안내**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이 통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표·승인(제365004호) 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건설부문에 고용된 기능직종의 시중노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설공사 원가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함.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 기준기간** : 2020. 9. 1 ~ 9. 30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이용상의 주의사항**
  - (1)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 (2)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 (3) 직종번호 앞의 「\*」 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02 조사내용****■ 평균임금현황**

- (1) 전체직종 : 230,798원[2020년 하반기(226,947원) 대비 1.7% 증가]
- (2) 일반공사 직종 : 219,213원(2020년도 하반기 : 215,178원)
- (3) 기타 직종 : 234,726원(2020년도 하반기 : 231,739원)

**■ 직종별 노임단가 : 부산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참조****03 2021년도 상반기 노임적용시점 : 2021.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5

##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안내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주요내용****■ 안전시설물 품 기준 신설**

- 안전난간대(토목),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 유로폼 자재비 계상방법 개선**

- 임대료 산정방법 조항 추가

**■ 콘크리트포장 기준 개선**

- 콘크리트 패이버(300kw) 시공기준, 장비조립·해체 투입기준 신설

**02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개정 주요내용****■ 현장조사를 통한 제·개정\* 및 최근 7개월 물가지수\*\* 반영**

\* 토공사(흙깎기), 철근-콘크리트공사(알폼) 등 293공종

\*\* 1,504공종(생산자물가지수, 평균 노임지수 반영)

**■ 표준시장단가 조사체계 개선**

- 변동성이 크고 사용빈도가 높은 196개 단가 조사주기 개선(5년 → 2년)

**■ 타워크레인 임대료 기준 개선**

-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 기준 명확화 및 적용 예시 제공

**03 항만 및 여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개정 주요내용****■ 유사공종별 균 평균증감율 반영 등 현실화\* 및 지수\*\* 반영 조정**

\* 사석투하, 피복석 제거 등 126공종

\*\* 193공종(생산자물가지수, 평균 노임지수 반영)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신기술 원가정보 →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 단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권해석  
01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서 기재된 총노무비 즉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산법 시행령에서 도급금액의 비율이상으로 직접시공하라는 의미인지?

예) 도급금액이 11억 원이면 직접시공비율이 20%이상인데 여기서 전체 도급금액의 총노무비(직·간접노무비)가 5억이라고 한다면 5억의 20%이상 즉 1억 이상을 직접시공 해야 하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도급금액에 따른 직접시공 비율로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직접시공의무비율 20% 이상이 적용되며, 따라서, 총 노무비(5억 원) 중 100분의 20 이상의 노무비(1억 원)를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20. 12. 23.

유권해석  
02

##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방법

**?**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하며, 설계서란 동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제6절 ‘1-나’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를 말합니다.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사’에 따르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이나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 등의 과다·과소 산정이나 착오·오류·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으나,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식 단가의 세부내용별로 풀어서 추가·변경·삭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품목·비목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물량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 증감 조정한 후 합산하여 다시 1식 단가에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목적·성질, 계약내용,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 설계서상 1식단가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을 참조하여 1식단가의 구성내용 확인), 공사현장여건 및 관련법령·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설계변경 사유(설계 불분명, 누락·오류, 설계서간 상이 등)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1식단가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설계변경 대상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단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20. 7. 17.



건설판례  
01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414]

### ① 판시사항

#### 0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0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 03

갑 건설회사가 을에게서 노인복지타운 신축 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가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당시 가시설공사 중 터파기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된 반면 흙막이 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Open Cut) 공사가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외관을 띠고 있어 이에 따라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갑 회사가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사 중단 당시 물리적으로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흙막이 공사 부분을 기성고 산정의 공정률에서 제외하고, 가시설공사의 공사계약금액에서 단순히 흙막이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을 뺀 나머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0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 0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03

갑 건설회사가 을에게서 노인복지타운 신축 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가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당시 가시설공사 중 터파기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된 반면 흙막이 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Open Cut) 공사가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외관을 띄고 있어 이에 따라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갑 회사가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가시설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분은 현장의 지반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도면에 따른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의 방법이 아닌 암발파 오픈컷 방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갑 회사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 공사가 이루어져서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흙막이 공사가 없더라도 가시설공사가 예정한 목적과 기능이 달성될 수 있어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나 장애가 없다면, 흙막이 공사 부분이 미완성 부분으로서 공정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공사의 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구별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각각 산출한 다음 기성고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공사 중단 당시 물리적으로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흙막이 공사 부분을 기성고 산정의 공정률에서 제외하고, 가시설공사의 공사계약금액에서 단순히 흙막이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을 뺀 나머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기택 김재형(주심)

# 하도급 분쟁 해법

## 【건설법 위반한 하도급공사라도 하도급법 적용】

오랫동안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을 통해 보호해 왔다. 하지만 독점규제법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마련,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가 그 업에 따라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야 한다. 때문에 원도급업체가 동종의 건설업에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원도급업체 중에서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서 소규모 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은 회사여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부분이 있다.

우선 법률적으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돼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또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라는 것은 분명하므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됐다는 점을 무기로 원도급업체가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 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해법



# 자신의 몸상태를 미리 알고 운동해야 합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겨울철 실내에서 몸을 관리하기 위한 운동을 하려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사례를 알려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뼈가 약한 상태나 질병으로 척추가 굳어 있으면, 무리하게 강한 힘으로 내리누르는 압박 운동이나 굽혔다 펴는 굴신 운동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 특히 근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 사례 01

39세 여자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가의 동작을 배워가던 중 척추를 아래로 향하는 동작에서 심한 허리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척추 단순방사선사진과 Tc-99m-MDP를 주사하고 시행한 뼈스캔에서 2번째 요추의 압박골절(화살표)로 진단되었습니다(그림 1).

이 경우는 뼈가 약한 상태(골감소)를 모르고 척추에 무리가 가는 요가 동작을 하여 발생한 척추 골절인데, 여성의 경우 골밀도 검사를 통해 자신의 뼈 상태를 파악해 두는 것이 폐경을 전후해서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osteoporosis)을 미리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합니다. 골밀도검사에 대해서는 Box 건강정보로 간단하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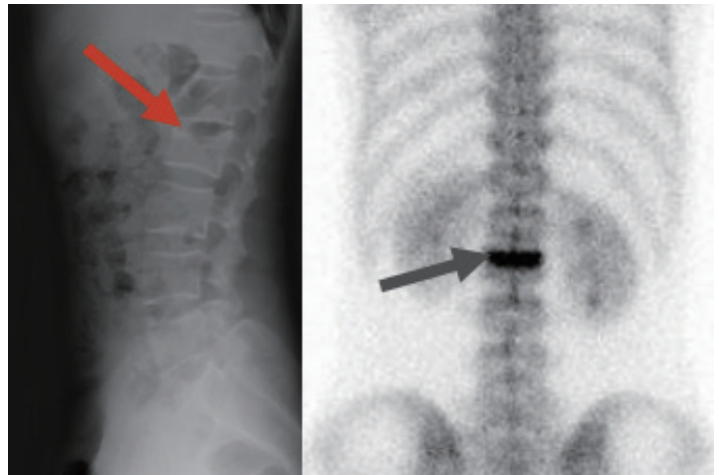


그림 1. 척추 단순방사선사진(왼쪽)과 뼈스캔(오른쪽)에서 2번째 요추의 압박골절(화살표)이 보임.

청소년기에 최대 골량을 올리기 위한 영양섭취와 무게가 실리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며, 장년이후에는 꾸준한 운동과 비타민 D와 칼슘 섭취, 적절한 일광욕 등을 통해 골밀도 감소를 줄이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여성과 흡연을 하는 남성들은 노후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40대 중반 이후에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례 02

55세 남자가 평소에 하지 않던 앞구르기 운동을 하면서, 목에서 “두둑”하는 소리가 난 후 멍해지면서 정신을 잃어 혼수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왔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에 동공의 광반응이 없이 완전히 확장된 상태였고, 통증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추부 방사선 촬영과 경추 CT(Computed Tomography,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목부위 척추(경추)의 OALL(Ossification of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전종인대골화증)과 OPLL(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후종인대골화증)이라는 드물지 않은 질환이 있었고, 3-4번째 경추의 골절이 동반된 척수손상이 심한 임상 상태였습니다(그림 2). 이러한 척수손상의 정도는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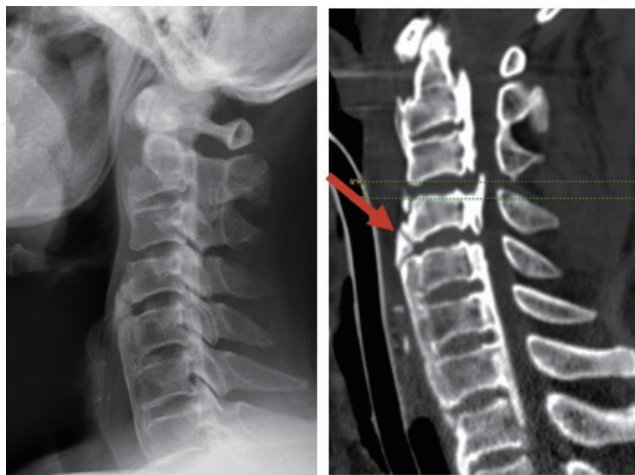


그림 2. 경추부 방사선 촬영(왼쪽)과 경추 CT(오른쪽): 경추에 OALL과 OPLL(전, 후종인대골화증)이 보이며, 3-4번째 경추의 골절(화살표)과 동반된 척수의 손상이 추정됨.

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10일째부터 심장 박동수 증가와 혈압 상승이 심해지면서 급기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참으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앞구르기 운동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에서 중년 이후에는 평소 안하던 새로운 동작의 운동을 하기 전에는 매우 조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신 신체검사나, 방사선 촬영 등을 한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는 특이한 질환이 선행된 경우에서 갑작스런 앞구르기 운동으로 인한 사망이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진료실에서 경험하는 영상이 있는 사례들을 KOSCA letter 독자들에게도 타산지석삼아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나날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영상의학과 핵의학 영상이 포함된 건강 관련내용 속에서 건강장수를 누릴 수 있는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강정보

골밀도 검사(Bone Densitometry)

1. 골밀도의 정량적 측정법의 종류

골밀도의 정량적 측정법으로 임상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방사선흡수법(radiographic absorptiometry, RA), 이중 에너지 방사선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정량적 초음파(quantitative ultrasound, QUS), 정량적 전산화단층촬영(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 QCT)과 정량적 자기공명영상(quantitative magnetic resonance, QMR) 등이다.

골밀도 감소의 유무는 척추 추체의 방사선사진으로도 가능하나 예민하지 못하다. 척추의 압박골절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척추의 측면방사선사진과 척추 형태 계측(vertebral morphometry)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심골 골밀도 측정법>

-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법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 정량적 전산화단층촬영 (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 QCT)
- 정량적 자기공명영상(quantitative magnetic resonance, QMR)

<말단골 골밀도 측정법>

- 방사선흡수법(radiographic absorptiometry, RA)
- 말단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법 (peripheral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pDXA)
- 정량적 초음파(quantitative ultrasound, QUS)
- 말단골 정량적 전산화단층촬영 (peripheral 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 pQCT)

2.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법(DXA)

1987년에 상업적으로 소개된 DXA는 검사 시간이 짧고 정밀도 오차가 적으며 동위원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전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골밀도 측정법의 표준방법이 되었다. 근래에는 방사선사진에 버금가는 해상도를 가진 기기가 개발되어 척추의 계측(morphometry)과 대퇴골의 geometry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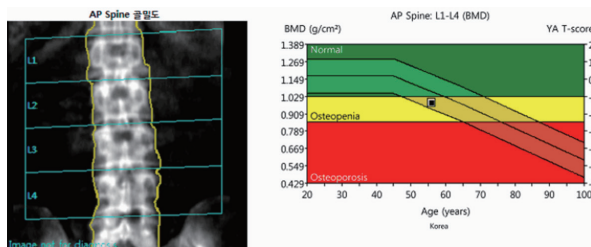


그림. DXA를 이용한 요추의 골밀도 측정. 주로 L1-4를 사용하며, 정상치와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한다. 이 증례는 56세 여성에서 골감소증(osteopenia)으로 진단한 경우이다.

# 회원사 현황

##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20. 12. 31.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 구	31	67
동 구	57	113
서 구	26	31
사 하 구	80	114
영 도 구	24	39
동 래 구	184	238
남 구	100	142
금 정 구	248	369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연 제 구	150	235
해운대구	245	343
수 영 구	108	170
부산진구	180	246
북 구	93	118
사 상 구	134	174
강 서 구	233	318
기 장 군	219	331
합 계	2,112	3,048

## ○ 부산 전문건설업체 변경 현황

2020. 11. 01. ~ 2020. 12. 31.

### 상호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무이건설(주)	금양건설(주)
(주)토금영이앤씨	(주)도시정비
(주)부원조경	(주)운암조경

### 대표자 변경

상 호	변경 전	변경 후
강남건설(주)	서정규	서운수
거림건설(주)	김형욱	지은식
(주)고방	박희인	조민아
글로벌조경(주)	최봉기	최민성
금양건설(주)	김명순	김 현
(주)대륙철도	유해근	심옥영
(주)대양디앤씨	양재원	이지영
대진산업개발(주)	안영환, 손용열	김경환
(주)동인호	안인식	황계자
목우건설(주)	정기현	정기현, 김정두
(주)신화건설산업	배준현	강기학
(주)에이	박재형	김기열
(주)엠에스이엔지	최병철	신현대
(주)운암조경	고민송	신형철
(주)월드강남	서운수	서정규
(주)제이제이인건설	김명순	정형민
(주)태안토건	박윤기, 박원양	박윤기

## ○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0. 11. 01. ~ 2020. 12. 31.

지 역	업체
전출 업체 현황	(주)가산조경건설 (대표자 : 최상호, 경남)
	(주)더그린 (대표자 : 김남희, 전남)
	상보씨엔테크(주) (대표자 : 노환길, 서울)
	연세대건설(주) (대표자 : 임승우, 서울)

지 역	업체
전입 업체 현황	(주)길조은건설 (대표자 : 김원형, 서울)
	동양이앤씨(주) (대표자 : 이성재, 경남)
	엘에스건설(주) (대표자 : 성선옥, 경남)
	태진건설(주) (대표자 : 오영애, 경남)
	한강건설 (대표자 : 조윤정, 서울)
	(주)한일건기 (대표자 : 김준식, 경남)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0. 11. 01. ~ 2020. 12. 31.

 <p><b>(주)경화산업개발</b>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71번길 26, 636호 (전포동, 더블루오피스텔) T: 051-807-4509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p> <p><b>주영현</b></p>	 <p><b>군센이엔지(주)</b>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75번길 6, 2층 (남산동) T: 051-556-7494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p> <p><b>지원구</b></p>	 <p><b>(주)다숲</b>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92-1 (다대동) T: 051-261-9882 보유업종: 조경식재공사업</p> <p><b>정재현</b></p>
 <p><b>(주)다운테크닉스</b> 부산광역시 연제구 온천천남로 128, 4층 2호 (연산동) T: 051-323-6311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p> <p><b>장동조</b></p>	 <p><b>(주)대성건설중기</b>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646번나길 29-7 29-7 (괘법동) T: 051-321-0515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p> <p><b>이상식</b></p>	 <p><b>(주)디비에스아이</b>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506호 (재송동) T: 051-783-2515 보유업종: 수중공사업</p> <p><b>김태호</b></p>
 <p><b>(주)미도이엔씨</b>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307호 (우동, 인텔리움센터) T: 051-743-6090 보유업종: 음식·방수공사업</p> <p><b>이명근</b></p>	 <p><b>(주)비원지건설</b>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716, 401호 T: 051-728-8856 보유업종: 토공사업</p> <p><b>김계중</b></p>	 <p><b>씨엘인프라테크(주)</b>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23번길 28, 2층 (구서동) T: 050-5988-5988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p> <p><b>김현창</b></p>
 <p><b>(주)에이디</b>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비동 406호 (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T: 051-715-0626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김도혁</b></p>	 <p><b>(주)유건</b>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36, 1층, 2층 (사직동) T: 051-507-7111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류영철</b></p>	 <p><b>(주)유니브윈</b>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263번길 12-7, 1층 (망미동) T: 051-515-8184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이재근</b></p>
 <p><b>(주)해드림</b>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395번 길 61, 1층 (안락동) T: 051-524-8339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p> <p><b>김정용</b></p>	 <p><b>(주)해마건설</b>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38번길 9 (사직동) T: 051-852-7225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p> <p><b>전용현</b></p>	

○ 회원 동정

무성토건(주) 대표이사 김종한(부산시회 제12대 대표회원)  
사무실 이전

일자: 2020년 10월 12일(월)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00(수정동)

천지개발(주) 대표이사 임철규(부산시회 제12대 대표회원)  
사무실 이전

일자: 2020년 12월 30일(월)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140, 406호(부곡동, 금정프라자)

신우개발 대표 김문곤(부산시회 제12대 감사)  
사무실 이전

일자: 2021년 1월 8일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5로다길 14

※ 회원사 동정란 게재 문의 부산시회 기획관리부 ☎051-633-0260

##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질식사고 예방

출처 안전보건공단

###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장 등 질식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 즉사!

#### 질식의 위험성

질식위험장소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

질식위험장소  
죽은 공기\*를 빼내지 않으면  
바로 사망!

\* 산소가 부족하거나 일산화탄소 등  
화학적 질식가스가 존재하는 공기

죽은 공기를  
마시면 손쓸 틈도 없이  
바로 사망!

#### 01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질식위험 확인

잠깐!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실시 전 아래의 단계별 확인 필수 실시!

[확인방법] 단계별로 작성하되, 해당 시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1단계 동절기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있는가?

2단계 갈탄, 목탄, 연탄, 겔(Gel) 타입\*  
고체연료를 사용할 계획인가?

**전기 열풍기를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 메탄올을 원료로 한 겔(Gel) 타입 고체연료도 연소 시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3단계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또는  
환기 등 안전작업절차 준수

#### 02 질식위험장소 내 환기 절차

① 송풍기에 자바라를 붙여서 입구에서  
**1m 이상** 밀어 넣고  
(가급적 작업 위치까지 밀어 넣는 것이 효과적임)

이런 모양의  
송풍기면  
환기 가능



②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 **10분 이상**  
공기를 불어 넣고,  
(단, 환기시간은 질식위험공간의 체적, 구조, 유해가스 발생량,  
환기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작업자가 들어간 후, 계속 **송풍기를 틀어 놓을 것!**  
(단, 유해가스 발생량에 따라 필요 송풍기 대수가 증가될 수 있음)

#### 관련법령

신안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 KOSHA-Guide-H-80-2017(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 및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침)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산소결핍장소 작업도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추락 등 2차 재해 예방 | 신속한 구조



### 03 질식위험장소 안전작업 절차

죽은 공기에 대한 대처방법!  
반드시 필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 필수 안전수칙

#### 위험성 인지

'질식위험장소는 사망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 인지 및 출입금지 조치 (사전조치 없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함)

#### 환기

죽은 공기는 강제 환기 없이는 잘 안 빠짐 반드시 환기팬으로 급기시켜야 함

#### 보호구 착용

환기팬 가동이 불가능하면 소방관처럼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 가스농도 측정기를 활용하면 유해가스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 04 재해사례

#### 재해사례1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옥탑 기계실에서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양생을 위해 갈탄 교체 작업 중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 되어 1명이 사망

#### 재해사례2

#### 주택 신축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을 위해 피우던 숯불난로의 교체 작업 중 연소 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

### 05 환기팬 등 질식재해예방 장비가 없으시나요?

우리 공단은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구조용 삼각대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사업안내/신청

직업건강-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 신청

관할구역 선택

담당자 유선연락 및 방문 수령



질식사고는 나쁜사고\*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 대여장비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구조용삼각대 등  
- 대여문의 : 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 및 21개 지사 (대표전화 : 1644-4544)

## 소통하는 문화공간



### 래시 컴 홈

개봉 2021.01.07. | 감독 올더디센 하노  
출연 세바스찬 베젤, 안나 마리아 뤼헤, 니코 마리츠카

#### 천재견과 소년의 눈부신 우정

12살 소년 플로와 천재견 래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다.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해 작은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플로가 더 이상 반려견을 키울 수 없게 되어 버리자 래시는 다른 사람의 집에 맡겨진다. 갑작스럽고 어쩔 수 없는 이별로 플로와 래시가 서로를 몹시 그리워하던 어느 날, 저택의 직원이 몰래 돈을 받고 래시를 팔아넘기려 한다. 래시는 이를 피해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고, 이 소식을 들은 플로는 래시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돌아온 래시》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다. 함께여서 행복한 플로와 래시의 눈물겨운 감동 스토리는 반려견이 있다면 더욱 와 닿을 만한 내용이다.



### 아이 엠 우먼

개봉 2021.01.14. | 감독 문은주  
출연 킬다 코브햄-허비, 다니엘 맥도널드, 에반 피터스

#### 세상에 울려 퍼진 용기 있는 노래

7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가수인 헬렌 레디의 이야기. 빌보드와 그래미를 접수한 시대의 디바이자 아이콘이었던 그녀에게도 쓰라린 실패의 과거는 있었다. 남성 가수와 밴드가 점령하고 있었던 미국 음반 시장에 뛰어든 헬렌 레디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마침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I Am Woman'으로 미국 음반 시장의 판도를 바꿨고, 그녀의 노래는 여성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움직임을 대변하는 노래로 사랑받으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토론 토국제영화제의 오프닝 나이트 개막작으로도 선정됐던 영화는 헬렌 레디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 국내 영화·음악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 Healing Movie



### 소울

개봉 2021.01.20. | 감독 피트 닥터

주연 제이미 폭스(조 가드너 목소리), 티나 페이(22 목소리), 데이비드 딕스(파울 목소리)

#### 마음을 두드리는 영혼들의 이야기

보이지는 않는 세계인 영혼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감나게 펼쳐진다. 뉴욕의 한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로 일하던 '조'는 오랜 꿈이 있다. 바로 유명 밴드와 함께 연주를 하는 것.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조에게 어느 날 꿈에 그리던 밴드와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벽차오르는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그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영혼이 되어 일명 '태어나기 전 세상'에 떨어진다. 영혼들이 멘토와 함께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하면 지구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곳에서 조는 지구에 흥미가 없는 영혼 '22'의 멘토가 된다.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 지구 통행증이 필요한 조는 영혼 '22'와 함께 고군분투한다.



### 파힘

개봉 2021.01.21. | 감독 피에르 프랑소와즈 마틴 라발

주연 아사드 아메드(파힘), 제라르 드빠르디유(실뱅), 미자누르 라하만(누라)

#### 체스로 전하는 기적 같은 감동 실화

영화는 실제 월드 주니어 체스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방글라데시의 천재 소년 파히 모하드의 삶을 스크린에 옮겼다. 자국의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 아버지와 함께 프랑스로 떠난 체스 신동 '파힘'은 말도 통하지 않는 파리에서 괴짜 같은 선생님 '실뱅'을 만나 본격적으로 체스를 배우기 시작한다.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다가 드디어 대회에 출전하는 당일, 문제가 터져버린다. 파리에서의 체류증을 구하지 못한 아버지가 추방 통보가 떨어진 것.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꼭 체스 챔피언이 되어야 하는 파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 파힘은 과연 챔피언을 획득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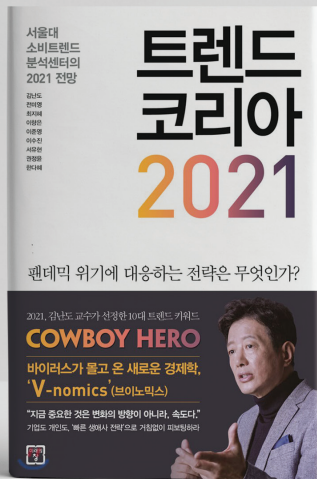
# Best Seller BOOK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글 정해린



## 트렌드 코리아 2021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외 | 미래의창 | 18,000원

코로나19로 인해 트렌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궤 경제, V-nomics(브이노믹스) 시대의 전략을 소개한다. 비대면과 '집콕'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팬데믹에 적응해가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삶은 계속되고 소비는 이루어진다. <트렌드 코리아 21>에서는 백신의 기원이 된 소의 해,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의 2021년 10대 트렌드 키워드 'COWBOY HERO'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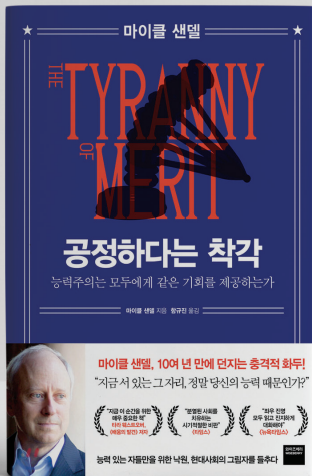
오은영, 차상미 | 김영사 | 17,500원

국민 육아멘토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의 신간이다. 아이들은 물론 대한민국 엄마·아빠들의 엄마로도 인정받는 오은영 박사가 육아 현실을 200% 반영한 '부모의 말' 130가지를 소개한다. 실제 육아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현실 밀착형의 표현들은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에게 친절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동화책 《짱 없는 뽀기 기계》의 그림작가 차상미의 그림도 함께 넣어 감성과 친근한 분위기도 더했다. 책을 통해 실용적인 정보와 함께 따스한 위로 또한 받을 수 있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2021년 1월 둘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하다는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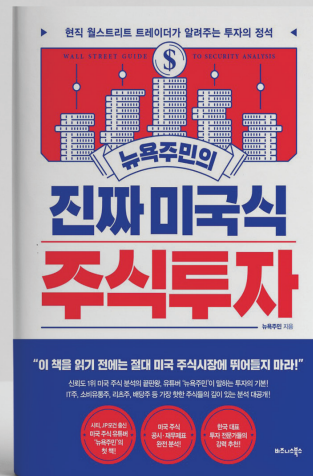


마이클 샌델 | 함규진 역 | 와이즈베리 | 18,000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신간으로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란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 출간 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샌델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공정함=정의’란 공식이 정말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 뉴욕주민의 진짜 미국식 주식투자



뉴욕주민 | 비즈니스북스 | 23,000원

현직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이자 미국 주식 분석 유튜버 ‘뉴욕주민’이 투자의 기본부터 소비유통주와 IT주 등 현재 가장 핫한 주식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자세하게 알려준다. 저자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투자 경험을 쌓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책은 객관적 정보의 중요성과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강조함으로 미국 주식투자의 정석으로 불리고 있다. 답답했던 한국 투자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분석법을 만나보자.

# 아는 것이 힘이다!

TIPS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01 천연 가습기 만드는 법

실내외의 공기가 모두 건조해지는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땅길 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리기 쉬워진다. 이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가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습기를 구매하지 않고도 여러 물건을 활용해 천연 가습기를 만들 수도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가습 효과를 내려면 젖은 수건이나 옷을 실내에 널어 두자. 또한 접시에 물을 담고 솔방울을 넣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솔방울은 물을 머금고 있으면 오므라들고 물이 마르면 썩 퍼진다.

## 02 페트병 재활용법

분리수거를 자주 해도 끝없이 쌓이는 페트병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먼저 집안에 지지분하게 널려 있는 비닐 봉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활용법이다. 페트병의 밑부분을 3cm 정도 자른 다음 비닐봉지를 넣어 반대편 입구 부분으로 빼준다. 세로로 세운 페트병을 끈으로 매달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비닐봉지를 뽑아서 사용하면 된다. 페트병의 입구 부분만 잘라 양쪽을 뚜껑으로 막고 한쪽만 열어 화장품을 덜어 놓으면 화장품 보관 용기가 된다.

## 03 난방비 절약법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 추운 겨울철에는 난방비 걱정을 피할 수가 없다.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소소한 꿀팁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배관과 필터 등 보일러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면 열효율이 높아져 약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40~60% 사이로 유지하면 난방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두면 보일러가 공회전하니 온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대쪽으로 돌려 놓도록 하자.

# 사시사철 불청객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이물감이나 건조감 등의 자극을 느끼게 되는 질환이다. 특히 대기가 건조한 겨울이나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습도가 높은 여름이라 할지라도 에어컨과 선풍기의 바람으로 안구가 건조해지기도 한다. 또한 봄의 미세먼지도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글 문현호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면 눈이 뻑뻑해지고 이물감이 느껴지며, 눈꺼풀이 무거워 지거나 충혈 되기도 한다. 또한 묘하게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평상시보다 눈이 부실 수 있다. 안구건조증은 노화의 일종으로 보통 40대 이상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으나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보편화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자기기의 화면을 볼 때는 눈 깜빡임 빈도가 감소하며, 완전히 감았다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휴식 없이 화면을 장시간 보는 습관은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속눈썹이 눈에 닿아서 눈물을 쓸어가거나 상처를 내는 경우, 결막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겨서 눈물 생성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 지방 분비선에 문제가 생겨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오히려 눈물을 뺏기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답이 아니다. 특히 지방 분비선 등이 원인이라면 눈을 깜빡일수록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원인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염증을 치료해야만 정상적인 눈물 분비가 가능한데도 자가진단으로 약국에서 인공눈물을 사서 버티다가는 병이 악화될 수 있다.

건조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 먼저 가까운 안과에 가서 눈에 맞는 안약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눈물 또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구입해야 한다. 증세가 심각하다면 시술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대중적인 치료로는 누점폐쇄술이 있다. 누점폐쇄술은 눈물이 코로 흘러가는 비루관의 입구인 눈물점을 실리콘 마개 등으로 막는 시술이다. 시술을 통해 부족한 눈물이 눈에 더 오래 머물도록 눈물이 빠져나가는 눈물점을 폐쇄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치료 또는 지속적인 관리 외에는 뚜렷한 완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눈물의 성분과, 염증 정도, 각막 표면의 감각 및 자율신경 손상 등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이 한 몫을 한다. 미세먼지와 꽃가루 같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눈이 피로하면 온 몸의 피로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기에 눈의 컨디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평소에 주변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만들고 장시간 눈을 사용할 때는 중간 중간 적정한 휴식을 취해 줌으로 건조함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자.



## 안구건조증 예방하기

- 생활하다가 한 번씩 눈을 천천히 떴다가 감아준다.
-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기 사용을 피한다.
- 눈을 오래 사용할 때는 중간 휴식 시간을 갖는다.
-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 실내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한다.
- 비타민 C, 블루베리 등 항산화 식품을 섭취한다.

부산의 시화로 붉게 물들다

# 꽃피는 동백섬

부산시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돼있는 동백섬은 부산의 여러 명소 중에서도 의미 있는 곳이다.

부산을 상징하는 시화인 동백꽃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끝나는 지점 뒤편에

아담하게 자리한 동백섬은 해변과는 또 다른 감성을 품고 있다.

동백꽃은 겨울부터 초봄까지 볼 수 있는데 활짝 피었을 때의 붉은 자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글 정해린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 역사를 담고 있는 동백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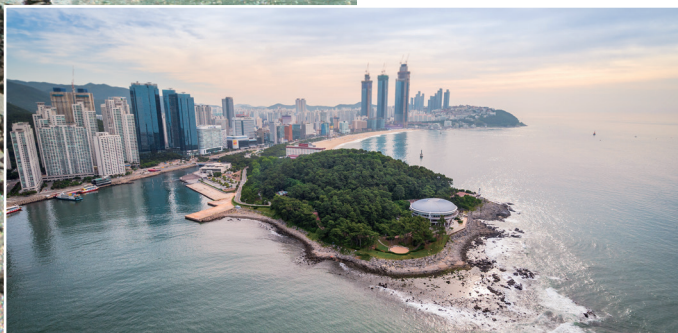
원래는 육지와 분리된 완전한 섬이었던 이곳은 오랜 세월을 걸친 퇴적작용으로 인해 육지와 연결되었지만 여전히 동백섬이라 불린다. 동백섬과 관련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였던 최치원에 대한 것이다. 최치원은 낙향해 절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동백섬에 들렀는데 그 경치에 반해 바닷가의 한 바위에 자신의 호인 '해운(海雲)과 누각이라는 뜻의 '대(臺)'라는 글을 새겼다. 이때부터 해운대라는 지명이 탄생했다. 현재 동백섬 안에는 최치원의 동상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옛 이야기를 보다 실감나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동백섬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유명한 노래 중에도 등장한다. 첫 소절에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기도 하다.

### 동백섬 천천히 둘러보기

동백섬은 그 둘레를 따라 걷기 좋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동백섬 초입에는 동백공원 안내도가 나와 있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방문이 처음이라면 참고 하기 좋다.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발길 가는 대로 걸으면 되는데 대부분은 누리마루 APEC 하우스가 가까운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섬을 한 바퀴 도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바다를 옆에 끼고 걷다 보면 상쾌한 바람과 함께 여러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동백섬에서 보는 부산의 전경은 매우 아름답다. 바다 건너편 미포 쪽의 해안끝선과 달맞이 언덕, 바다를 가로지르는 랜드마크 광안대교, 오류도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힘을 들이지 않고 여유롭게 걸으면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다.

### 또 하나의 볼거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산책로를 따라 유유히 걷다보면 어느새 발걸음은 동백섬 끄트머리에 위치한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닿는다. 동백섬 입구에서 500m 정도만 걸으면 되니 가벼운 산책 코스로 적당하다. APEC 하우스의 지붕은 한국 전통 건축인 정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 형태는 동백섬의 능선을 상징하고 있다. 2005년 APEC 정상회담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도 사랑받는 APEC하우스는 푸른 부산 바다의 풍경을 더욱 멋지게 완성시킨다. 작은 등대가 세워져 있는 동백섬의 전망 테크에서도 APEC하우스를 볼 수 있다. 테크의 오른쪽 방향에는 APEC하우스가 있으며 왼쪽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다. 뒤편으로는 광안대교와 이기대공원까지 보여서 더욱 좋다. 테크에 설치돼있는 망원경을 통해 탁 트인 전망을 한 눈에 담아보자.



호화로운 바로크 양식의 집약체

# 베르사유 궁전 (Versailles Palace)

글 정해린

바로크 건축의 걸작으로 불리는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가량 떨어져 있는 베르사유 시에 위치해 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가 건설한 이곳은 태양왕 루이 14세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이기도 하다. 건설에는 무려 3만여 명의 인부가 매년 동원되었다고 한다. 궁전에는 루이 14세부터 루이 15세와 루이 16세의 왕실 가족들이 거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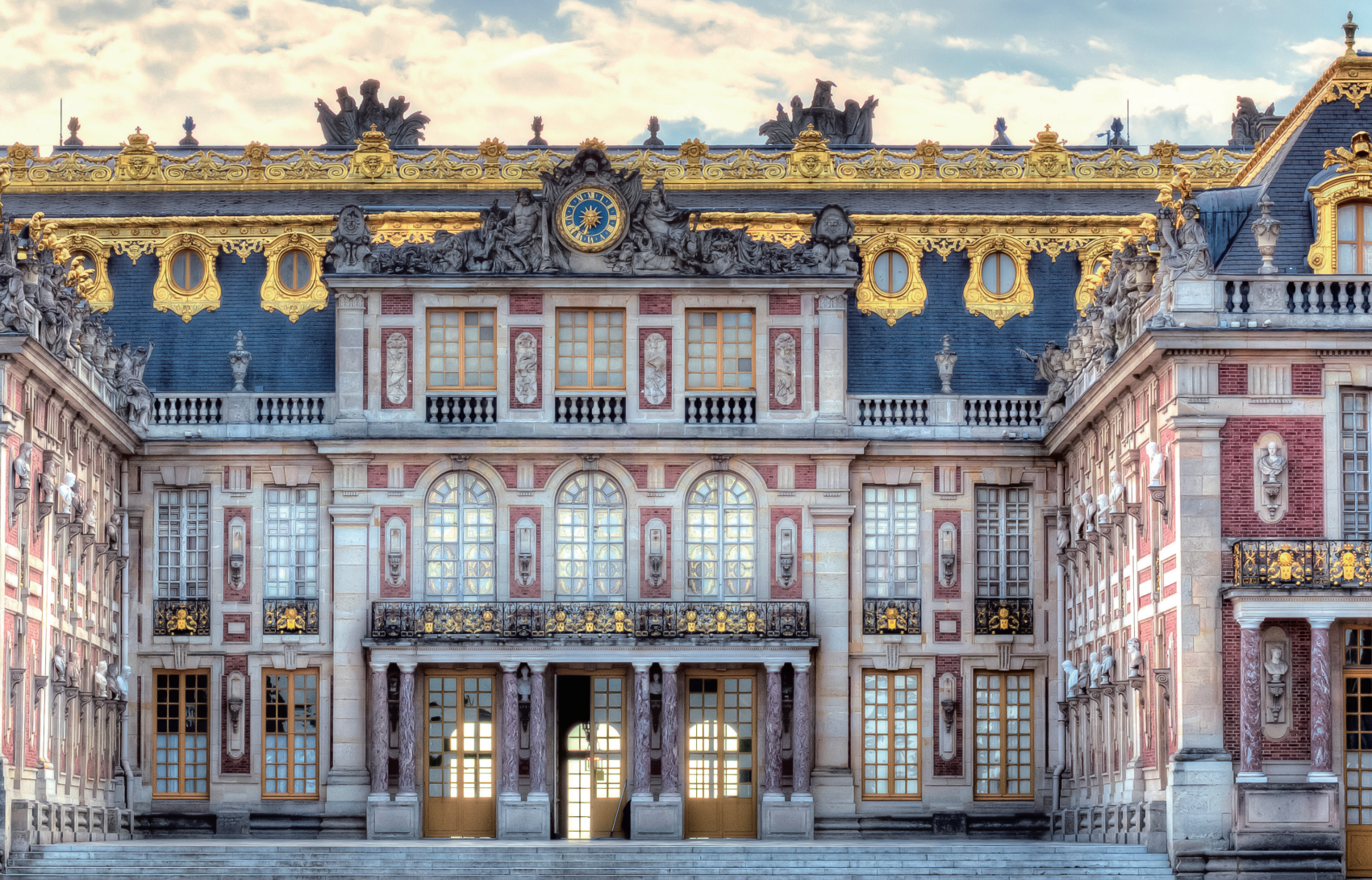
베르사유에 최초로 궁전이 들어선 것은 1624년이였다. 처음에는 루이 13세의 사냥용 별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루이 13세 사후, 궁전은 한동안 방치되다가 1651년 루이 14세의 방문 이후 실내 설비 및 정원 정비 등을 포함해 궁전의 확장 공사가 진행됐다. 루이 14세가 궁전과 궁원의 확장을 결정한 것은 당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건물 중 하나인 일드프랑스(Ile-de France) 주의 보르비콩트 성을 보고 난 뒤였다.

궁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진 곳인 거울의 방이다. 이 방은 전체길이 73m, 너비 10.4m, 높이 13m로 정원 방향으로 17개의 창문이 달려있으며 반대편 벽에도 17개의 거울이 배열되어 있다. 거울의 방은 궁전 중앙 본관의 2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규모가 엄청나며 매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이에 왕족의 결혼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견 등 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거행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쓰였다. 방의 북쪽으로는 전쟁의 방, 남쪽으로는 평화의 방이 자리 잡고 있다.

베르사유 궁전은 드넓은 정원을 빼놓고는 그 아름다움을 다 말할 수 없다. 궁전 건물의 면적보다도 넓은 정원은 프랑스의 대표 정원이기도 하다. 이 정원은 프랑스의 조경 설계가인 르 노트르에 의해 1661년부터 1700년까지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만들어졌다. 르 노트르는 이곳 외에도 퐁텐블로 성과 생클루 궁전 등 뛰어난 정원을 만들어 '정원사의 왕'이라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정원 수많은 정원 중 그의 이름을 가장 빛낸 곳은 단연코 베르사유라 할 수 있다.

베르사유 정원을 다 돌아보려면 한두 시간으로는 어렵도 없을 것이다. 루이 14세의 절대 권력이 묻어있는 강렬한 정형식의 정원과 곳곳에 있는 물과 분수, 한적한 전원 농가풍의 프티 트리아농 등 각기 다른 매력을 풍기는 여러 공간들은 구경하는 재미를 더해주며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 *Versailles Palace*

# 여유로운 등산 즐기기

## 등산 필수 안전수칙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체력도 기를 수 있는 등산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도전할 수 있는 취미다.

몇 가지 주의사항만 인지한다면 등산을 위한 준비는 완료된다.

그 중 등산의 절대 안전수칙 하나는 꼭 기억하자. 바로 '절대 무리하지 말 것'이다.

이것만 지켜도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등산 시 유념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알아보자.

글 문현호

### 정해진 등산로를 통해 다니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등산로는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눈감고도 갈 정도로 흰한 상황이 아니라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등산로만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단순히 길을 잃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 초목이 우거지거나 낙엽이 쌓여 있어 구덩이나 돌, 지상으로 튀어나온 나무뿌리 등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등산을 하다 길을 잃게 됐다면 발아래를 잘 살피고 다녀야 한다.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정해 놓은 탐방로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한해 놓은 탐방로는 자연 보호를 위해서 막아놓은 곳도 많지만 대체로는 위험해서 막아둔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등산 초보의 경우 어두워지면 닦아놓은 길이라 해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해가 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오도록 하자.

### 등산화는 필수, 짐은 최소한으로

등산화의 바닥 구조는 흙과 암반에 대한 적당한 접지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동력 및 추진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보통 아웃솔(밑창)의 패턴이 유지만 되면 상관이 없으나 오래된 등산화의 경우 패턴이 거의 지워져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암반에 대한 접지력은 그럭저럭 괜찮을지 몰라도 흙에 대한 접지력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동력과 추진력도 약해진다. 특히 미끄러짐이 발생했을 경우 거의 제동이 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밑창이 완전히 닳기 전에 새 제품을 구입하거나 수선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등과 어깨를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짐이 많아 등이 무거우면 몸이 앞으로 쏠려 부상의 위험이 커지며 체력 소모도 많아진다. 가방에는 물과 약간의 식량, 상비약과 등 비상시를 대비한 필수물품만 챙겨도 충분하다.

### 페이스를 적당히 조절하자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면 무사히 내려올 때까지 체력을 분배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체력의 전체 부분을 '10'으로 친다면 올라가는데 4, 내려오는데 3, 비상용 3 정도로 배분하는 것을 권장한다. 간단히 말해 오르는 데만 체력의 절반 이상을 썼다면 위험하다. 특히 혈기왕성한 2-30대 남성들이나 초보자들은 초반부에 힘들지 않다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거침없이 올라가다가 탈진해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 소방청에서 "산악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할 정도다. 자신의 평소 체력과 체격을 고려해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산을 오르는 것이 중요하니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취미를 즐길 때 삶은 더욱 유익해지고 행복해진다.



## 틈날때 간단하게 배우는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회화를 소개한다.  
이번호에서는 말레이시아 사람과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알아보자.

### 말레이시아어 기초 인사말

상황	인사
안녕하세요	Apa khabr 아빠 까바르
만나서 반갑습니다	Saya senang bertemu anda 사야 스낭 버르뜨무 안다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쓰리마 까시
미안합니다	Maafkan Saya 마아프칸 사야
좋은 하루 보내세요	Jumpa lagi 줌빠 라기

### 말레이시아 사람과 만났을 때, 참고하세요!

#### TIP. 01

처음 만나 인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악수가 허용되나, 일부 여성 이슬람교도는 신체 접촉 대신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여성과 인사할 때는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이에 화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악수를 할 때 손을 너무 세게 잡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TIP. 03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왼손을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용을 금기시합니다. 상대방에게 물건을 전달할 때는 오른손으로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가리킬 때 검지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욕적인 행동으로 인식됩니다. 이때는 주먹을 쥐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TIP. 02

집에 초대 받았다면 실내에 들어갈 때 한국처럼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손님용으로 음료를 제공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며,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슬람교도가 많은 말레이시아에서 건배는 익숙한 풍습이 아니니 이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 TIP. 04

라마단은 이슬람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금식기간으로 약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음식과 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음식을 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금식 중인 신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실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STORY 01

# 고3 때 있었던 일

까다로운 수학 주관식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정답이 '1092'라는 소리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우등생의 답안지를 슬쩍 훑쳐본 다음 친구들에게 퍼뜨린 것이었다.

학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답안지에 그것을 베껴 적었다.

시험이 끝난 후 정답이 게시판에 공개되었다.

정답은? 'log2'



☺ STORY 02

# 여자가 말이 많은 이유

남편 : 어떤 박사가 그러는데 말이야.  
남자들은 하루에 2200단어를 쓰는데 여자들은 4400단어나 쓴다더군!

부인 : 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남편 : 이유가 뭔데?

부인 : 남자들은 여자들이 같은 말을 두 번씩 되풀이해 줘야만 알아듣거든요.



#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을 위한 무릎 스트레칭

책상 앞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기 마련이다.

이때 잠깐이라도 굽은 자세를 풀어주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짧은 시간 안에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무릎 스트레칭으로

몸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주도록 하자.

## ✓ 무릎 스트레칭1

- ❶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자세로 앉는다.
- ❷ 종아리를 들어 허벅지와 수평으로 만든다.
- ❸ 다리를 편 채로 3~5초 정도 버틴다.
- ❹ 천천히 다리를 내려준다.



## ✓ 무릎 스트레칭2

- ❶ 일어나서 의자 뒤로 이동한다.
- ❷ 의자를 잡고 왼쪽 발로 선다.
- ❸ 오른쪽 다리를 뒤로 쪽 뻗어준다.
- ❹ 반대편도 이와 같이 반복한다.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01** 중앙회 김영윤 회장은 12월 22일 7개 경제단체 대표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주 및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경제단체들은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지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종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02** 중앙회 김영윤 회장과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은 12월 11일 차담회를 갖고 건설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차담회는 조달청이 내년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방향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주요 건설단체인 전건협의 입장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격심사 등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기준 개선 △입·낙찰 현황에 대한 자료 공유 △입찰공고 시 설계서 의무 공개 등을 요청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01**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나누기 위해 당초 올해 말까지로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지원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연장안에 따라 특별용자 신청 및 선급금보증수수료 20% 할인, 선급금공동관리제도 50% 완화 효과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특별용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1회 연장(대체) 신청도 가능하도록 조치해 조합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현재 코로나 특별용자를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이 용자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용자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이용 중인 용자의 만기일이 2021년 6월 30일 전에 도래한다면 만기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부산시회 2021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 자	주요일정	비 고
2021. 2. 15(월)	건설 (전문)공사 실적신고 접수 마감	

※ 상기 일정은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집체교육과 원격교육(화상교육, 이러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므로, 다음과 같이 일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별칙 :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 18:00)     • 교육비용 : 150,000원

####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인터넷·팩스·전자우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 교육 신청서 팩스 혹은 전자우편 전송 후 교육비 결제 (무통장 입금)
  - **전송방법** : 팩스 02-3284-1066 / 전자우편 [edukosca@naver.com](mailto:edukosca@naver.com)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04 집체교육(부산)

교육일자	교육장소
2021. 1. 15. (금)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상의홀)
2021. 4. 30. (금)	
2021. 7. 23. (금)	
2021. 10. 29. (금)	

※ 타지역 및 다른 일정을 원하실 경우, "별첨" 자료 또는 홈페이지([edu.kosca.or.kr](http://edu.kosca.or.kr)) 확인 후 신청 가능함.

#### 05 화상교육(시범운영) 및 이러닝교육

구분	화상교육	이러닝교육	비고
계획	'21. 1월~3월, 총 3회 (시범운영)	'21. 4월 이후 (총47회)	화상교육시스템 활용
일정	· 2021. 1. 20(수) · 2021. 2. 23(화) · 2021. 3. 24(수)	추후안내예정	
신청·접수	'21. 1. 11(월)부터 (신청순 마감)	추후안내예정	

※ 기존 집체교육 신청자의 경우 화상교육으로 변경 가능함

#### 05 2021년 교육일정(1~4월)

구분	일	교육방법	지역	장 소
1	15	집체	-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상의홀
	20	집체	실시간 화상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4층 회의실
	29	집체	-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7층 대회의실
2	05	집체	-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7층 대강당
	19	집체	-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시 서구 갈마로 160, 제1연수관 1층 소강당
	23	집체	실시간 화상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4층 회의실
	26	집체	-	대구 대구문화방송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7층 컨퍼런스룸
3	05	집체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국제습지센터 1층 입체영상관
	12	집체	-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3층 대강당
	19	집체	-	수원 디에스컨벤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1층 대연회장
4	24	집체	실시간 화상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4층 회의실
	02	집체	이러닝	의정부 신한컨벤션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지하1층 컨벤션2홀
	09	집체	이러닝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5층 국제회의장
	16	집체	이러닝	천안 천안축구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 대세미니실A
	21	집체	이러닝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4층 회의실
	30	집체	이러닝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상의홀

##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은종산업  
**김도영** 주임

지난 호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겨울이 왔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습니다.  
2020년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만큼 새해는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2021년도 더욱 발전하는 협회와 코스카레터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초록종합건설  
**문헌화** 대리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있는데 협회에서 문서안내도 해주시지만, 이렇게 코스카레터로 정리된 책자로 한번 더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연정조경건설 차장 **김수진**
- (주)공간조경 대리 **박선하**

###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 1억 / 50억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종합·전문의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기획재정부 「적격심사 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상향되었는데 기존 예정가격 대비 86.745%에서 얼마나 상향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2021. 2. 26.(금)까지** 응모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명)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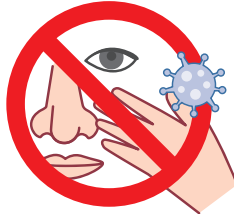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 기억해야 할 근로자 수칙

## 근로자 예방수칙



작업 전·중·후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개인 작업복·보호구  
사용으로 교차감염 예방하기



임신여성·장년근로자는  
작업 중 마스크 꼭 착용하기



호흡밸브가 있는 방진마스크는

바이러스 등의 외부배출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예방용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작업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으로 먼저 상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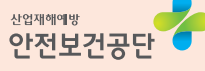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선별진료소 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